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2월 12일 화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12호

경향각지에서 속속 열리는 김정일총비서 탄생절 행사

김정일총비서의 60회 생일(2.16)을 앞두고 이북 각지에서 다양한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고 있다.

○...이북 언론을 종합한데 따르면 평양미술축전의 일환인 ≪2.16경축 산업미술전람회≫가 9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렸으며 4월까지 계속된다.

전람회에는 만수대창작사, 공업미술창작사, 경공업미술창작사 등 미술창작기관들과 공장.기업소 산업미술가들, 각 도.시 미술가들, 평양미술대학 교원.학생 등이 출품한 900여점의 산업미술 도안들이 전시됐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앞으로 이북에서 생산될 자동차.여객선.여객열차 등 수송수단의 도안이며 전시된 신발도안은 24점, 생활필수품 도안은 250여점에 달했다.

○...평양 창광원 수영관에서는 수중발레 모범출연(시범출연) 연습이 한창이다.

이번 출연에는 국제.국내경기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선수들이 참가해 단체, 1인조, 2인조 형식으로 진행하며, 종전과 달리 어린이들의 수중발레도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평양교예단에서도 공중회전, 요술, 풍자희극 등 다양한 종목을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으며 이들의 공연은 14일부터 17일 사이에 진행된다.

○...문화성은 9일 강능수문화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정일**총비서의 문학예술부문 업적을 찬양하는 연구토론회를 가졌으며 문학예술총동맹(문예총) 중앙위원회도 이에 앞서 지난 7일 연구토론회를 진행했다.

○...평양시 노동자예술소조 종합공연이 9일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열렸으며 한성룡. 김중린 당중앙위원회비서, 김윤혁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서기장, 렴순길 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장 등이 공연을 관람했다.

○...**김일성**종합대학에 있는 **김정일**총비서의 ≪혁명사적관≫ 참관도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보름동안 육해공군 군인들과 인민보안성, 채취공업성, 문화성, 과학원, 조선컴퓨터센터, 동평양화력발전소, 평양산원, 김책공업종합대학 등의 각계층 근로자 4만여명이 이곳을 다녀갔다.

○...금수산기념궁전에는 10마리의 백조가 새로 둥지를 틀었는데 이것은 최근 ≪강창성이 사업하는 단위≫에서 **김정일**총비서 생일을 맞아 보내온 것이다. 이들 백조의 키는 70~80㎝, 무게는 8~10㎏이다.

○...**김정일**총비서 생일행사에 참가할 여러 외국대표단도 평양에 도착했다.

러시아 과학원 중앙식물원 대표단과 중국 하얼빈(哈爾濱) ≪**김정일**화 보급후원회≫ 대표단이 제6차 ≪**김정일**화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9일 평양에 도착했으며 이집트. 조선친선협회대표와 핀란드. 조선친선협회대표단도 지난 8일과 9일 각각 방북했다.

○...해외 친북단체들도 김총비서 생일행사를 개최, 러시아는 5일 경축집회를, 에티오피아와 페루의 친북단체는 지난 1일 영화상영주간을, 이집트단체는 3일 도서.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를, 나이지리아단체는 지난달 31일 작품발표회를 각각 가졌다. (연합뉴스)

김정일총비서 조선주재 중국신임대사를 접견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10일 조선주재 중화인민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 무동화를 접견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새로 부임되여 온 특명전권대사와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나누시였다.

김정일총비서 작가 고 최영화의 령전에 화환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최영화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9일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최근동정

1 경향각지에서 속속 열리는 김정일총비서 탄생절 행사
1 김정일총비서 조선주재 중국신임대사를 접견
1 김정일총비서 작가 고 최영화의 령전에 화환

노작

2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2)

세기와 더불어

4 1장 7절 유산 (1)

칭송

6 ≪조국통일상≫에 깃든 사연
6 설날의 축원
6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한국민족민주전선

7 8.15평양축전참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들 실형
7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2월 10일
8 썩고 병든 사회정치풍토 하루빨리 척결해야
9 이회창의 한미공조 넋두리
9 부시의 방한은 반통일행각

조선중앙통신

10 주체 91년 2월 10일 뉴스
11 선군혁명 천만리 – 다박솔언덕에서(1) 로동신문 정론

김일성종합대학방송강좌

1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생하고 계신다

아리랑뉴스

13 뜨거운 부시 방한 반대, 작가회의도 나섰다
13 시민사회단체, 한미투자협정 경제종속화 지름길
13 부시, 한국 차기 대통령과 거래 가능성
14 민주노동당 권영길대표 인터뷰 (5)
14 세무조사가 언란이라는 조선일보

운동강좌

15 조・미 관계 10년을 통해 본 한(조선)반도의 통일정세 (4)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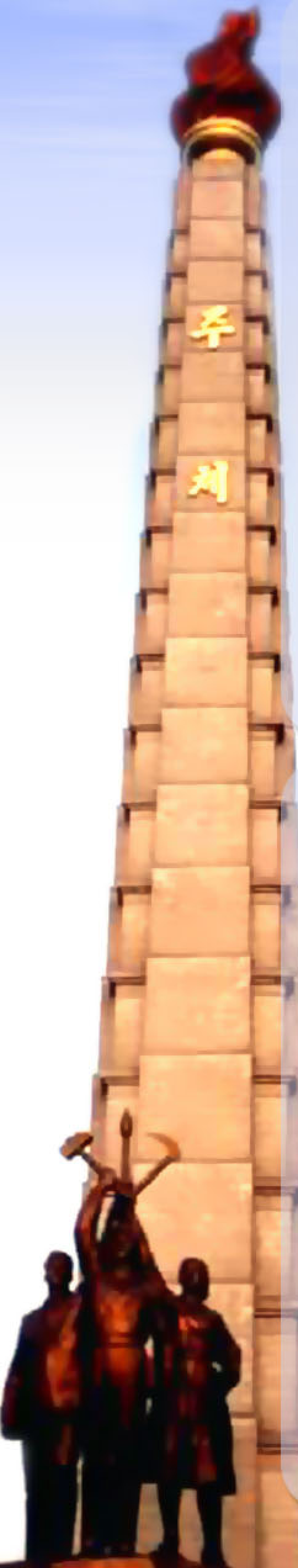
15 PDF총서 ≪21세기 태양≫ 6. 음악정치

조국통일3대헌장

16 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5대방침(2)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2)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 1989년 12월 28일



혁명을 끝까지 하려는 계속혁명의 의지를 지니는 것은 자주세력과 반동세력 사이,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사이에 치열한 대결전이 벌어지고 있는 오늘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비방중상하여 인민들의 마음 속에서 그에 대한 신심을 허물어버림으로써 반사회주의전략을 기어이 실현하려고 꾀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 책동에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이 구현된 우리 식의 사회주의가 제일 좋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사회주의를 더 잘 건설하겠다는 드팀없는 의지로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의 이러한 신념과 의지가 바로 우리 당이 내세운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사회주의를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고 더욱 빛내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은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 책동에 커다란 타격으로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나라에 와보고 ≪부익부, 빈익빈≫의 자본주의가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근심걱정 없이 고르롭게 잘사는 안정되고 번영하는 조선식 사회주의가 제일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사회주의위업에 대하여 신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이 땅 위에 사회주의를 더 잘 건설하는 것이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 책동을 파탄시키고 인류의 자주위업을 다그쳐 나가는데 커다란 기여로 된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오늘 우리 당이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고 하는 목적과 의도론 똑똑히 알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 교양을 강화함으로써 민족의 영예를 더 높이 떨치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켜 나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고 당과 수령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위대성은 곧 우리 수령, 우리 당의 위대성입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여야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영도따라 혁명하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민족의 영예를 더욱 빛내어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과 수령에 대하여 글도 만이 써내지만 우리 수령님과 우리 당의 위대성을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전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이 우리 식의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일대 민족적 번영을 이룩하여 온 역사는 수령님의 혁명활동역사이며 우리 당의 투쟁역사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역사의 갈피마다에 깃들어 있는 당과 수령의 업적은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업적입니다. 이에 대하여 책도 적지 않게 썼지만 쓴 것보다 아직 쓰지 못한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당과 수령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성에 대한 책도 더 많이 써내고 문학예술작품도 더 많이 만들어 내야 하겠습니다.

당조직들과 선전일군들은 당과 수령의 위대성 선전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깊이 있게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한가지 선전을 하여도 사람의 심금을 울릴 수 있도록 실속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당과 수령의 위대성 선전자료를 하나 만들어도 품을 들여 설득력 있게 만들고 대상의 특성에 맞게 잘 해설해주어야 합니다. 선전일군들을 비롯한 모든 일군들은 선전원이 되어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우리 수령님과 우리 당의 위대성을 널리 해설선전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학습을 통하여서만이 아니라 실생활을 통하여 체득합니다.

사회주의건설장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는 자랑찬 성과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누리는 행복한 생활을 통하여 우리 인민들은 당과 수령의 영도의 현명성과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가슴 뜨겁게 느낍니다. 모든 일군들은 당과 수령의 영도따라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고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는 것이 곧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빛내이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당과 수령의 구상을 철저히 실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빛내이는 것은 당과 수영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온갖 불건전한 요소와의 투쟁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늘 계급적 원쑤들이 사회주의를 압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면서 당과 수령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데 공격의 예봉을 돌리고 있는 조건에서 당과 수령의 권위를 철저히 옹호보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모든 일군들은 언제 어디서나 당과 수령의 권위를 훼손시키려는 원쑤들의 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자그마한 요소도 제때에 철저히 분쇄해 버려야 하겠습니다.

당과 수령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현상은 우리 일군들의 무책임성으로 하여 빚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노선과 방침을 왜곡집행하는 현상을 비롯하여 당과 수영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온갖 불건전한 요소를 철저히 없앰으로써 당과 수령의 높은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보위하여야 하겠습니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켜 나가는 데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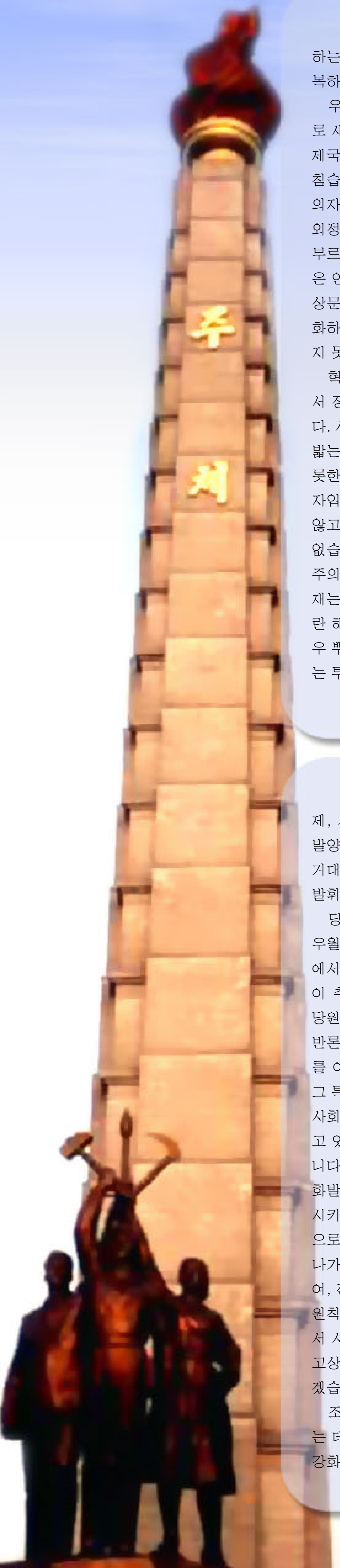
우리 당의 사상과 이론, 노선과 정책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다그치고 민족의 영예를 빛내어 나가는 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우리의 힘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전략과 전술, 원칙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밝혀 져 있습니다. 주체사상과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철저히 옹호관철하여야 조선혁명을 우리 식대로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노작과 당 문헌학습을 깊이 있게 하여 그 본질과 내용, 정당성을 똑똑히 인식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학습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의 사상이론과 정책을 실생활에 구현하자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습을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그것 이 사람들의 사상수양과 혁명과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일군들은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늘 머리를 쓰고 이악하게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정책을 관철하자면 인민대중을 발동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당의 노선과 정책이 정확하고 수행방도가 명백하다 하여도 인민대중이 발동되지 않고서는 실생활에 구현될 수 없습니다.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은 대담한 작전과 힘있는 정치사업, 능숙한 지휘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 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의 노선과 정책을 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진을 저해하는 개인주의, 본위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 무책임성을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

우리 민족의 위대성은 곧 우리 수령, 우리 당의 위대성입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여야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영도따라 혁명하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민족의 영예를 더욱 빛내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는 투쟁을 꾸준히 벌여 그것을 철저히 극복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사상과 정책을 유일한 신념으로 새기고 그 요구대로 일하고 생활하자면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와 수정주의의 침습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 책동이 격화되고 내외정세가 복잡한 조건에서 우리 내부에도 부르조아사상과 수정주의가 침습할 위험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우리는 부르조아사상문화와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여 우리 내부에 그것이 절대로 침습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혁명과 건설을 우리 식대로 해나가는 데서 장애의 하나는 사대주의, 교조주의입니다. 사대주의, 교조주의는 민족의 존엄을 짓밟는 유해로운 사상이여 기회주의사상을 비롯한 온갖 반동적 사상을 끌어들이는 안내자입니다.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없애지 않고서는 민족제일주의정신을 발양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가 사상조류로서는 없어졌지만 그 잔재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우리 혁명에 커다란 해독을 끼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는 매우 뿌리 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 벌이지 않으면 일부 사람들 속에서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군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임으로써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혁명과 건설을 오직 당정책의 요구대로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는 데서 가장 우월한 우리 식의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식의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이 민족제일주의정신을 가지게 하는 사회적 기초이며 그것을 더욱 빛내어 나가자는 것 이바로 민족제일주의정신을 발양시키는 목적입니다. 민족제일주의의 영예를 떨쳐나가는 길은 곧 우리 식의 사회주의를 더욱 강화발전시켜 나가는 길입니다.

지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사회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다 보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한 생활을 응당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깊이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교양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교양은 일반적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구체적인 현실을 가지고 깊이 있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전일군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특성과 우월성을 깊이 있게 해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라고 하면 어느 나라 사회주의나 인류 역사에 존재한 모든 착취사회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선진적인 사회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매개 나라의 환경과 조건이 같지 않고 민족성이 다르며 혁명과 건설에서 의거하는 지도사상, 지도이론, 지도방법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만큼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방식에서뿐 아니라 사회주의제도의 구체적인 형태에서도 차이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세우고 우리 인민의 지향과 이익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는 우리 식 의 사회주의입니다. 우리 식의 사회주의는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 혁명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세워지고 주체사상에 의하여 발전완성되어가는 사회주의입니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사람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집단주의적인 요구를 훌륭히 구현하고 있는 가장 우월한 주체의 사회주의입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정치, 경제, 사상문화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높이 발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그 거대한 우월성으로 하여 불패의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의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옳게 인식할 때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회주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에 대한 일반론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식의 사회주의를 어떻게 건설하고 공고발전시켜 왔으며 그 특성과 우월성이 어디에 있고 우리 식의 사회주의가 얼마나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해설해 주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식의 사회주의를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원칙과 방도를 잘 인식시키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우리 식의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어 나가야 합니다. 특히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고상한 기풍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는 데서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는 긍지 가운데서도 가장 큰 긍지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확고히 실현한 것입니다. 단결은 민족이 융성번영하는 길이며 사분오열은 민족이 망하는 길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인민이 지난날 망국노의 설음을 받게 된 것도 민족이 단결되지 못하고 사분오열된 데 있었습니다. 봉건통치배들은 당파싸움만 하다가 나라를 망치고 말았으며 과거의 민족해방투쟁과 초기 공산주의운동도 사대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파쟁으로 인하여 실패를 면치 못하였습니다.

쓰라린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민족의 단결을 갈망하던 우리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모시게 됨으로써 비로소 단결의 중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때로부터 우리 민족이 단결하여 승리의 길을 개척하는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혁명이 엄혹한 시련의 고비를 수없이 넘어오면서도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 수 있은 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은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이색적인 요소를 철저히 극복하고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움으로써 공산주의운동역사에 일찍이 있어보지 못한 가장 공고한 통일단결, 위대한 일심단결을 실현하였습니다.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강화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사회주의위업의 종국적 완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입니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대를 이어 고수해 나가는 문제가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라는 것을 똑똑히 인식하고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한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당 안에 종파는 없지만 일군들 속에 지방주의, 가족주의, 패배주의와 같은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당의 통일단결을 해치려는 반당적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리라고는 담보할 수 없습니다. 지난 날 종파분자들이 안팎의 정세가 복잡할 때마다 머리를 쳐들고 당에 도전해 나섰던 교훈에 비추어 안팎의 정세가 복잡한 오늘 우리는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문제에 큰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당의 반종파투쟁 경험과 교훈을 가지고 일군들을 교양하는 것과 함께 그들 속에서 당조직을 존엄 있게 대하고 당조직의 지도와 통제 밑에 사업하고 생활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됩니다)

1권 제1장

비운이 드리운 나라

1. 우리 가정
2. 아버지와 조선국민회
3. 독립만세의 메아리
4. 타향에서 타향으로
5. ≪압록강의 노래≫
6. 나의 어머니
7. 유산

7. 유산 (2)

팔도구시절에 우리 집으로 자주 찾아오던 황씨는 우리 아버지의 생애에 큰 흔적을 남긴 사람이였다. 후창에서 일경들의 손으로부터 아버지를 탈환해낸 사람이 바로 황씨였다.

아버지는 국내조직들과의 련계를 지으려고 포평에 건너갔다가 비밀아지트로 리용하던 국수집근방에서 매복경관들에게 붙잡히였다. 적들에게 아버지를 밀고한 것은 우리 뒤집에서 객주업을 하던 손세심이였다. 이자가 사흘이 멀다하게 우리 집에 찾아와서는 아버지의 곁에 딱 붙어앉아 ≪김선생≫, ≪김선생≫하면서 알랑거리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손세심이 밀정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냈다.

총독부 경무국에서는 지하조직을 들춰내기 위하여 아버지를 체포한데 대해서 극비에 붙이고 평안북도경찰부에 고위급관리들을 급파하여 아버지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하였다. 포평경찰관주재소 순사부장 아끼시마와 다른 순사 한명이 부랴부랴 후창경찰서를 거쳐 신의주 도경찰부까지 아버지를 호송해가게 되였다. 적들이 아버지를 체포하자마자 신의주로 호송하게 된 것은 압록강연안에서 활동하는 독립군들이 아버지를 탈환해갈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였다.

아버지가 포평경찰관주재소 류치장에 갇혀있는 동안은 놈들이 가족을 주재소에 들여놓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아버지가 신의주로 호송되게 된 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황씨가 달려와서 그 소식을 알려주었다.

≪성주 어머니, 내가 집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변호사를 대고 재판받는 것까지 보고 오겠으니 너무 걱정마시우다. 집에 술이 있으면 몇병 주시오.≫

그는 독한 술 몇병에다 마른명태 한코를 망태기에 넣어가지고 슬금슬금 아버지를 따라갔다. 순사놈들은 아침 일찌기 길을 떠났는데 연포리주막집에 왔을 때는 점심시간이 다되였다. 그자들은 배가 출출하다고 하면서 그 주막집에 밥을 시키였다. 그때 일행을 뒤따라 연포리까지 온 황씨가 그 집에 들어와 동정을 살피다가 망태기에서 술병을 꺼내들고 순사놈들에게 술을 권하였다.

놈들은 처음에 죄인호송중이여서 안된다고 하다가 황씨가 자꾸 권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한잔두잔 받아마시기 시작하였다. 황씨는 잡혀가는 사람에게도 밥을 먹여야 할게 아니냐고 하면서 경찰들을 구슬려가지고 아버지의 한쪽손에는 수갑을 벗기게 하였다. 황씨도 술을 많이 마셨으나 취하지는 않았다. 그는 원래 술고래였다.

아끼시마는 자기의 수하졸병인 조선인순사와 함께 마침내 그자리에 꼬꾸라져 코를 골기 시작하였다. 그 틈을 타서 아버지는 황씨의 도움으로 수갑을 풀고 그와 함께 주막집에서 뛰쳐나와 맞은켠에 있는 뾰족봉으로 올랐다. 산꼭대기에 거의 올라섰을 때 눈이 내리기 시작하였다.

술에서 깨여난 순사들은 그때에야 정신을 차리고 헛총질을 하면서 아버지를 추격하였다. 놈들이 총질을 하는 바람에 아버지는 그때 뾰족봉에서 황씨와 헤어졌다. 그후로는 그를 만나지 못하였다.

내가 해방후 이 황씨를 찾느라고 여러곳에 줄을 놓았다. 곤란할 때 그렇게도 목숨을 내대고 서슴없이 아버지를 도와주던 사람이 웬일인지 좋은 세상을 만나니 쉽사리 나타나지 않았다. 황씨는 우리 아버지를 대신하여 단두대에라도 올라설수 있는 진실한 벗이며 동지였다. 황씨와 같은 성실한 동지의 방조가 없었더라면 아버지가 그런 역경속에서 위기를 모면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아버지의 친구들이 아버지를 보고 동무복을 타고났다고 말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아버지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또 많은 독립운동자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다보니 주위에는 군중이 많았고 혁명동지들과 친구들이 많았다.

나는 후퇴시기 리극로선생한테서도 아버지의 탈출과 관련된 상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전쟁이 일어난 그해 초가을에 공화국정부에서는 지방들에서의 현물세납부사업을 추진시킬 목적밑에 여러명의 내각성원들을 전권대표로 파견하였다. 그때 무임소상을 하던 리극로선생도 평안북도에 파견되였다.

선생이 과업을 다 수행하였을 때는 전략적 후퇴가 시작되어 우리가 강계지방에 가있을 때였다. 하루는 그 선생이 내각에 사업보고를 하겠다고 하면서 나를 찾아왔다가 연포리주막집에 대한 화제를 느닷없이 꺼냈다. 자기가 후창군에서 일을 끝내고 강계로 나올 때 그 군 내무서장을 데리고 연포리라는데 가서 우리 아버지가 탈출한 주막집을 직접 돌아보았는데 그 집이 그냥 남아있더라는 것이였다. 강계와 후창은 당시까지만 하여도 다 평안북도에 속해있었다.

한생을 남조선과 해외에서 보내다가 해방후 건국을 앞두고 북반부에 들어온 리극로선생한테서 연포리주막집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희한한 일이였다. 지금처럼 우리 아버지의 사적이 널리 공개된 때라면 몰라도 연포리주막집이 무슨 집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때에 그런 말을 들으니 나로서는 신기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고 리극로선생에게 물었다.

≪리선생이 어떻게 되어 우리 부친의 력사를 다 아십니까?≫

≪나는 벌써 20년전에 김형직선생님 명성을 들었습니다, 길림에서 어떤 고마운 분이 장군님일가에 대해서 자상하게 이야기해주지 않겠습니까. 이 전쟁만 끝나면 춘부장님에 대한 전기를 쓰고싶습니다. 그런데 붓끝이 무뎌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평상시 그처럼 과묵하고 조용하던 리극로선생이 이날은 흥분을 억제하지 못하고 많은 말을 하였다. 우리는 내각이 자리잡고 있은 번잡한 방을 떠나 인적이 드문 독로강(장자강)기슭을 거닐면서 한시간 남짓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리극로선생에게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황귀헌의 아버지 황백하였다. 그 당시 리극로선생은 신간회대표단 성원으로 만주지방에 들어가 있었다. 그 대표단의 사명은 5.30폭동과 8.1폭동에서 피해를 입은 조선동포들에 대한 구제사업을 하는 것이였다. 폭동피해자들이 속출하자 신간회지도부는 만주지방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그들에 대한 원호사업을 하려고 하였다. 그때 리극로선생은 심양에서 최일천을 만났다. 길림에 가면 황백하를 만나보라고 선생에게 권고한 사람이 바로 최일천이였다. 리극로선생은 그의 말대로 길림에 가자 황백하를 만나 그에게서 구제사업을 위한 도움도 받고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때부터 연포리가 후창군에 있고 후창군이 우리 아버지의 주요한 활동연고지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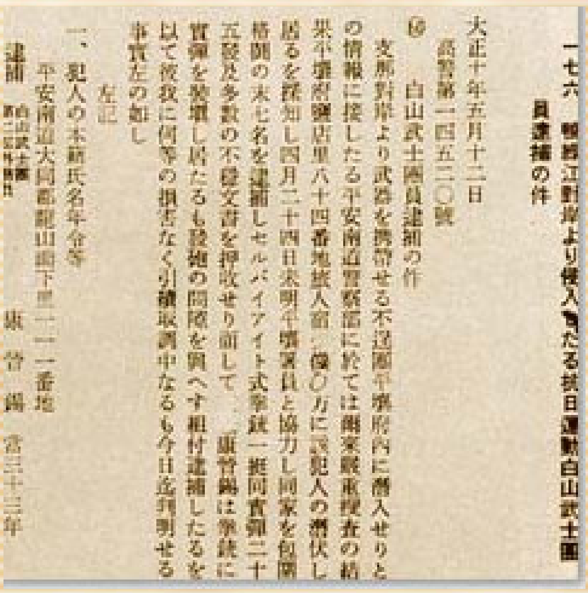
신간회가 선생을 대표로 만주지방에 파견한 것은 그가 이 일대에서 다년간 교육활동에 종사한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생은 내도산의 독립군부대에서 한동안 훈련도감으로도 있었고 무송의 백산학교와 환인현의 동창학교에서 교편도 잡았다. 그런것만큼 선생이 만주에 갔다가 거기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은 십분 있음직한 일이였다.

≪군내무서장이라는 사람은 주막집내막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창군의 수치라고 비판을 좀 했습니다. 그리구 내무서장이 책임지고 주막집을 잘 보존하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리극로선생은 후대들이 선렬들의 투쟁력사를 모르면 후레자식이 되는 법인데 일군들이 전통교양을 잘하는 것 같지 않다고 걱정하였다. 창건된지 두해밖에 안되는 청소한 공화국이 생사존망의 기로에 서있던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혁명전통을 고수해야 한다는 선생의 말을 듣고보니 나도 얼마나 고마운 생각이 드는지 몰랐다. 이 땅을 찾기 위해 싸우다가 희생된 선렬들의 령혼이 우리의 눈앞에 한꺼번에 날아와 싸워서 이기라고, 조국을 끝까지 수호하라고 절규하는 것 같아서 뜨거운 충동을 금할 수 없었다. 조선이 다 망했다고 떠들던 때에 연포리에 대한 리극로선생의 이야기가 나에게 힘을 주었다.

황씨와 헤어진 아버지는 하루종일 산에서 헤매다가 연포리 주막집에서 그닥 멀지 않은 가둑령이라는 곳에서 오막살이땅굴막을 하나 발견하고 주인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서로 통성을 하는 과정에 아버지는 주인이 전주 김씨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땅굴막주인은 가둑령과 같은 심심산골에서 동성동본의 혁명가를 만난 것은 경사라고 하면서 호감을 가지고 아버지를 진심으로 도와주었다.

김로인은 땅굴막근처에 있는 조난가리속에 아버지를 숨겨주었다. 그때 발도 얼고 무릎도 얼고 아버지의 하반신이 다 얼었다. 사지를 가드라뜨린채 운신도 못하고 며


一七六 鴨緑江對岸より侵入したる抗日運動白山武士團員逮捕の件
大正十年五月十二日
高警第一四五二〇號
白山武士團員逮捕の件
支那對岸より武器を携帯せる不逞團平壌府内に潜入せりとの情報に接したる平安南道警察部に於ては嚴重捜査の結
左記
一、犯人の本籍氏名年令等
平安南道大同郡龍山面下里一一一番地

김형직선생님의 지도를 받은
무장대들의 활동에 대한 일제의 비밀문건

칠동안 찬바람이 스며드는 낟가리속에 숨어있으면서 그만 난치의 병을 얻었다.

로인은 낟가리속에 밥덩어리도 넣어주고 구운 감자도 넣어주면서 아버지를 보호해주었다. 아버지를 놓쳐버린 아끼시마는 상급으로부터 호된 추궁을 받았다. 평안북도경찰부에서는 후창에서부터 죽전리에 이르는 압록강류역에 물샐틈없는 경계망을 펴고 며칠동안 수색을 계속했다. 그러면서도 가둑령의 조난가리에 대해서는 별로 주의를 돌리지 못하였다. 아버지가 그때 정황판단도 잘하고 은신처도 잘 선택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는 사이에 김로인은 압록강변에 나가서 강물이 얼었는가 얼지 않았는가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아버지에게 장대기를 가지고 강을 건느는 방법까지 대주었다. 아직 얼음이 두텁게 얼지 않은 때여서 서뿔리 강을 건너갈수 없었다.

아버지는 김로인이 시켜준대로 얼음우에 장대기를 놓고 두손으로 그것을 밀면서 배밀이도 압록강을 무사히 건너갔다. 장대기만 들고 있으면 물에 빠져도 목숨을 잃

을 념려가 없었다. 아주 기발한 도강방법이었으나 그 도강과정에 아버지는 재차 동상을 입었다. 그때의 그 동상이 1년후 무송에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된 또하나의 화근으로 되었다. 천신만고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압록강을 무사히 건는 아버지는 며칠동안 토로즈마을에서 치료를 받다가 공영과 박진영의 안내로 무송으로 떠나갔다. 공영과 박진영은 장철호가 지휘하는 정의부소속의 무송주둔 독립군대원들이였다.

우리 아버지가 오동진의 소개로 공영이란 인물을 알게 된 사연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하였다. 공영은 벽동군 출신으로 벽동독립청년단시절과 벽파별영에서 무장대원으로 활동하던 시기부터 아버지의 지도를 받아오던 진실한 청년이였다. 아버지하고는 아주 막역한 사이였다. 우리 집에 오면 늘상 ≪성주≫, ≪성주≫하면서 나를 사랑해주었다. 나도 후날 그가 공산주의자가 되어 우리의 동지로, 전우로 되기 전까지는 그냥 그를 아저씨라고 불렀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공영은 말리허에 있으면서 한주일에 한번 정도씩 쌀과 나무를 마련해가지고 우리 집에 찾아와 어머니를 위로해드리군 하였다. 그의 부인도 산나물을 한임씩 해이고 남편을 따라 우리 집에 오군 하였다. 공영은 우리 아버지를 잊지 못해 한동안 몽상을 벗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 두사람과 함께 무송으로 들어가다가 만강경내에서 마적들에게 붙잡혀 도 봉변을 당하였다. 사방에 토비들이 우글거리던 때였다. 군벌들이 도처에서 칼을 빼들고 세력다툼을 하던 혼란되고 불안정한 당시의 환경이 토비들을 많이 만들어냈다. 살길이 막힌 최하층의 인간들 중에도 이 길에 나선 사람들이 많았다. 게다가 일본제국주의자들도 반일세력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비적단들에 침투하여 그 상층을 조종하거나 따로 토비들을 길러냈다. 토비들은 무리를 지어다니면서 주민

국내 무장소조원들에게 혁명임무를 주시는 김형직선생님

장철호

지구의 가옥들을 털기도 하였고 행인들을 붙들어놓고 돈이나 물건 같은 것을 빼앗아내기도 하였다. 수가 틀리면 사람들의 귀를 베거나 목을 자르는 잔인한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그런것만큼 아버지를 호위해가는 두사람도 여간 긴장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의사라고 신분을 밝혔으나 무지막지한 마적들은 의사라면 돈이 많지 않겠는가고 하면서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 의사가 무슨 돈이 있겠는가, 병을 봐주고 겨우 밥벌이나 하는데 그러지 말고 당신들가운데 병난 사람이 있으면 고쳐줄수 있다, 돌아가서 관헌들한테 당신들을 고발하지도 않을테니 놓아달라고 하면서 여러가지로 구슬려도 말을 듣지 않았다. 일이 이쯤 되자 공영은 저녁식사후 그들이 약담배를 빨고 해이해진 틈을 타서 등잔불을 끄고 아버지와 박진영을 먼저 탈출시킨 다음 여라문명 되는 마적들을 격술로 모조리 쓰러뜨리고 토비굴을 뛰쳐나갔다. 참으로 일종의 활극을 방불케 하는 극적인 장면이였다.

이 탈출에서 공영이 발휘한 희생적인 노력을 두고 아버지는 인상깊은 회상을 자주 하였다. 공영은 동지를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는 헌신적인 투사였다.

며칠후 아버지는 무송에서 장철호를 만났다. 몇해전까지만 해도 측량을 하던 사람이 그때는 군인이 되어 독립군이 한개중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그는 병색이 짙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몹시 상심해하며 몸이 추설 때까지 자기들이 주선해놓은 거처에서 쉬라고 하였다. 다른 사람들도 다들 그렇게 권하였다.

사실 그때의 아버지로서는 몸조리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육신을 지탱할 수 없는 형편이였다. 아버지자신도 그것을 모를리가 없었다. 그때가 겨울치고도 제일 추운 때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병든 몸에 찜질 한번 해볼 경황도 없이 인차 북행길에 올랐다. 장철호중대장이 직접 아버지를 목적지까지 안내하였다. 그때 다녀온곳이 바로 화전과 길림이다. 아버지가 몸에 생긴 동상을 무릅쓰고 그토록 총총히 이 지방들에 간 것은 독립운동단체들의 단일전선에로의 통합과 반일애국세력의 단결을 촉진시키기 위해서였다. 그 당시는 독립운동자들속에서도 당을 내오는 문제가 일정에 오르고 있었다.

사상이 발전하고 혁명의 리념화가 심화됨에 따라 정당정치는 시대적 추세로 되어 세계의 정치계에 급속히 일반화되어갔다. 부르죠아정객들도 공산주의자들도 다같이 정당정치를 지향하였다. 10월혁명을 분기점으로 하여 아세아 여러 나라들에서도 공산당들이 련이어 창건되였다. 새 사조의 보급과 함께 동방도 정당정치의 시대를 맞이한 것이였다. 1921년에는 우리의 린방인 중국에서도 공산당이 창건되였다. 이런 배경속에서 조선의 선각자들도 민족해방투쟁을 정치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을 힘있게 다그치였다.

정당정치는 그 지침으로 되고 기초로 될 수 있는 사상과 리념의 창시와 그 발전을 전제로 하며 그것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부르죠아민족주의는 우리나라 근대력사에서 하나의 사조로 등장하여 민족해방운동을 지도해왔으나 자기의 정당을 가지지 못한채 조락되고 있었다. 민족해방투쟁무대에서는 부르죠아민족주의를 대신하여 새로운 공산주의사조가 대두하였다. 부르죠아민족주의가 더는 민족해방투쟁의 기치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한 새 세대의 선각자들속에서 공산주의신봉자대렬이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민족주의진영에서도 많은 선진분자들이 공산주의운동에로 방향을 바꾸었다.

관전회의에서 제시된 방향전환의 방침은 선언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운동내부에서 선각자들에 의해 실천단계에 들어서고 있었다. 관전회의방침을 맨처음으로 실천에 옮기기 시작한 사람은 오동진이였다. 오동진이 지휘하는 독립군부대에서는 관전회의가 있은 후부터 맑스-레닌주의사조에 공감해나선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일제는 이 시기에 대두한 새 세력을 ≪제3세력≫이라는 이름으로 규정지었다. 일경의 포박에서 탈출한 아버지가 무송을 거쳐 길림에 간 1920년대중기는 민족운동내부에서 방향전환을 지향하는 혁신파와 그것을 반대하는 보수파의 분해과정이 촉진되던 때였다.

아버지는 이런 대세를 통찰한데 기초하여 방향전환의 리념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조직의 탄생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만주지방에서의 조선사람들의 민족운동은 그때까지 국권회복의 리념밑에 주로 직접적인 무장활동과 교육, 민생 문제를 기본으로 하는 자치활동의 형태를 띠고 전개되어왔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운동을 정치적으로 령도할 수 있는 조직이 없었다. 이런 실정으로부터 아버지는 길림일대에서 활동하던 혁신계렬의 민족주의자들과 함께 만주지방에 산재하는 모든 군사단체들과 자치조직들에 대한 정치적 령도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을 내오기 위한 준비사업에 착수하였다.

그 첫 사업이 바로 아버지의 제의로 길림의 우마항에서 소집된 모임이였다. 모임은 1925년초 길림시 북산밑에 있는 박기백(박일파의 아버지)의 집에서 열리였다. 이 회합에는 량기탁, 현하죽, 오동진, 장철호, 김사헌, 고원암, 곽종대 등 독립운동의 원로들과 중견인사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이 독립운동을 통일적으로 령솔할 수 있는 정치단체의 필요성을 한결같이 인정하고 가까운 장래에 모종의 유일당을 내올데 대한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모임에서는 창당과 관련된 여러가지 원칙적 문제들도 협의하였다.

리관린의 회상에 의하면 회의과정에 제일 많이 론의된 것은 당의 명칭에 대한 문제였다고 한다. 당명을 조선혁명당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는가, 고려혁명당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문제였는데 결국 명칭도 중요하지만 활동목적에 부합되게 당의 임무와 강령을 정확히 설정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데로부터 명칭은 고려혁명당으로 락착짓고 강령토의에 넘어갔다는 것이다. 우마항회의에 참가했던 독립운동지도자들은 1년후 국내에서 온 천도교혁신파대표와 형평사대표, 연해주에서 온 대표들과 함께 련석회의를 열고 ≪현금의 사유재산제도를 소멸하고 현존한 국가조직을 철폐하여 공산제도에 의한 세계단일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고려혁명당을 결성하였다. 병중에 있은 아버지는 그때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아버지는 북산과 강남 공원을 참관하고 신안툰의 청년단체간부들까지 만나본 다음 무송에 돌아와 우리에게 전화로 림강을 떠나도록 분부하였다.

림강을 떠나 얼마간 갔을 때 우리는 장철호중대장이 보낸 두명의 베감투를 쓴 독립군대원을 만났다. 그들이 베감투를 쓰고 온 것은 특무들의 의심을 덜 받기 위한 위장이였다.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온 말파리를 타고 무송으로 향하였다. 아버지는 무송시가에서 40리가량 떨어진 대영에까지 나와 우리를 마중해주었다. 얼굴에 비록 병색은 짙었으나 환히 웃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만가지 시름이 다 풀리는 것 같았다. 나는 동생들의 손을 이끌고 앞으로 달음박질해갔다. 동생들은 내가 미처 인사를 드리기도 전에 아버지한테 매여달려 두달동안이나 품어두고 있었던 말들을 한꺼번에 쏟아놓았다. 아버지는 그들의 응석을 일일이 다 받아주면서도 내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였다.

≪조국의 물이 좋기는 좋구나! 내가 너를 조선에 내보내고 잠을 못잤는데 네가 어느새 이렇게 숙성했구나!≫ 하며 아버지는 기뻐하였다.

그날밤 우리는 가족끼리 모여앉아 밤을 밝히며 회포를 풀었다. 내가 아버지의 탈출을 도와준 황씨와 전주 김씨로인, 만강토비굴에서의 공영의 용감한 미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 바로 그날밤이였다.

나는 조국에서 보고 느낀것을 이야기하다가 아버지에게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두번다시 압록강을 건느지 않겠다는 결심을 말씀드리였다. 아버지는 대견스럽게 나를 살펴보더니 조선의 아들이라면 응당 그래야 한다고 긍정해주면서 조선을 알기 위한 공부가 창덕학교에서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되니 새고장에 와서도 조국을 알고 민족을 알기 위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고 의미심장하게 당부하였다.

(내일 계속됩니다)

무송에서 살던 소남문거리의 집

일화

≪조국통일상≫에 깃든 사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성업에 기여한 사람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주시며 영생의 삶을 주시는 민족의 어버이이시다.

그분의 숭고한 사랑은 통일인사들에게 수여되는 ≪조국통일상≫에도 깃들어있다.

주체79(1990)년 봄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 준비정형을 요해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국광복 45주년을 맞으며 ≪조국통일상≫을 제정하여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북과 남, 해외동포들을 표창할데 관한 가르치심을 주셨다 한다.

그때로부터 며칠후 장군님께서는 이북의 관계부문 간부에게 ≪조국통일상≫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위원회 정령으로 수여하며 ≪조국통일상≫수상자들에게는 메달과 함께 상장을 수여할 데 관해 가르쳐주셨다 한다.

통일의 길에 헌신한 열사들과 인사들의 공적을 높이 평가해주시려는 그분의 숭고한 사랑과 의리에 감격한 유관부문의 사람들은 낮에 밤을 이어 ≪조국통일상≫메달 견본과 상장견본을 만드는 사업을 벌였다.

1990년 6월말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일꾼들이 올린 ≪조국통일상≫메달견본과 상장견본을 보아주셨다.

그분께서는 ≪조국통일상≫메달은 다른 메달들과 달리 금으로 하며 그 안에 통일된 조국을 상징하여 조선지도를 그려넣도록 가르치셨다. 그리고 ≪조국통일상≫상장견본을 읽어보시고는 못내 만족해하시며 친히 ≪조국통일상≫상장 견본을 비준해주셨다 한다.

그분께서는 ≪조국통일상≫수상자들을 선발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셨다.

1990년 8월 어느날 ≪조국통일상≫수상자 선발사업실태를 요해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상≫은 공화국북반부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남과 해외에서 싸운 사람들에게 더 많이 수여하도록 해주시고 친히 그러한 대상자들을 헤아려주시었다.

그분께서는 광복직후와 그 이후 시기, 6.25전쟁시기와 전후 여러 시기마다에 조국통일성업에 헌신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꼽아나가셨다.

여운형, 김구, 김규식, 성시백, 박정호, 이현상… 그리고 80년대의 방북인사 문익환목사, 임수경양, 문규현신부 등도 있었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방북인사들이야말로 ≪조국통일상≫수상자의 영예를 지닐 수 있다고 다시금 확언하셨다 한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과거 반공친미의 길을 걷다가 생애의 말년에 연공연북, 통일애국의 길에 나선 최덕신, 최홍희, 임창영, 김성락목사 등에게도 ≪조국통일상≫을 수여하도록 하시었다.

이날 그분께서 내세워주신 ≪조국통일상≫대상자들은 무려 1백여명에 이르렀다 한다.

그후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상≫수여식을 평양의 만수대의사당에서 의의깊게 진행하며 수상자들과 유가족들, 제1차 범민족대회 대표들도 참가시키도록 조처하셨다.

그분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피심 속에 ≪조국통일상≫수여식은 남과 북, 해외 온 겨레의 크나큰 기대와 관심 속에 성공리에 진행될 수 있었다.

각 계층 민중들 속에서 통일열기가 한층 고조되어가던 1992년 3월 어느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또다시 이북의 유관부문간부에게 ≪조국통일상≫수상자들을 선발, 추천하는 사업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실행방도에 관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셨다. 그리고 그후에도 친히 사람들속에 잘 알려지지 않은 통일애국열사들을 찾아주시고 그들에게도 ≪조국통일상≫을 수여하도록 조처하셨다 한다.

참으로 **김정일**장군님은 정견과 신앙, 재산유무에 관계없이 애국하는 사람, 통일성업에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공로를 평가해주시고 영생의 삶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민족의 태양이시다.

송시

설날의 축원

최학순

햇빛도 눈부신 하늘가에 축복의 눈꽃들 날리는 설날 아침
휴전선의 첫 마을 대성동부터 남해의 끝자락 마라도까지
하나로 잇닿은 남녘민중의 마음
축원의 꽃다발 정히 안고서 구름너머 북녘으로 달리어간다

희망이 불타는 21세기
가슴부푸는 새 세기의 첫날 아침
맨먼저 축원의 인사 받으셔야 할 분
그분은 민족의 태양
세기의 아득한 만리에
햇빛을 뿌리시는 **김정일**장군님

그분이 아니던가
백두산의 슬기를 한몸에 지니시고
빨치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분
누구보다 민중을 사랑하시어
민중위한 참세상 펼치시는 분

정녕 그분이 아니던가
6월의 따뜻한 햇빛을 내려 통일의 이정표 밝혀주시고
눈부신 지략을 펼쳐 대국들을 한손에 휘어잡으신 분
활달하신 그 첫걸음으로 새 세기의 길이 열리고
환하신 그 미소에서 통일조국 새 아침이 밝아오리라
높이 치켜드신 그 손길에서 강성대국 앞날이 펼쳐지리라

새 세기의 꿈을 주시고 푸르른 삶을 주신 분
그분의 사랑으로 밝아온 설날이어서
경향의 마음 송이송이 찬겨울 눈 속에도
흠모의 꽃으로 피어났는가
온 남녘이 그대로 꽃바구니
축원의 꽃바다되어 삼가 드리는 설인사도 뜨겁구나

겨레의 운명이시며 민족의 창창한 미래이신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님
천만년의 세월 무궁토록
부디부디 만년장수하시라!

흠모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라오스와 토고, 시에라리온, 우간다, 페루, 덴마크 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들에서는 영화감상회가, 소말리아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에서는 도서, 사진전시회가, 말리 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에서는 사진전시회와 영화감상회가, 제네바유엔사무국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옵써버대표부 겸 국제기구주재 상설대표부에서는 친선모임이 2월 15일부터 21일까지의 사이에 진행되였다.

도서, 사진 전시회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들 그리고 우리 나라 도서들과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성과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행사들에는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위원인 조선통일지지라오스위원회 위원장, 페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말리인민민주동맹 중앙집행국 대외관계비서와 국회의장, 토고인민연합 중앙위원회 위원인 토고전국대학생 및 실습생운동 위원장, 스위스노동당 정치국 위원인 조선통일지지제네바위원회 위원장, 시에라레온전인민대회당 중앙위원회 국제부장을 비롯하여 주재국들의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 일꾼들,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단체, 주체사상연구조직 일꾼들이 참가하였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새 조선≫, ≪평양의 모습≫,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행사참가자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탄생일을 열렬히 축하하고 그이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였다.

소말리아 사회계 인사 모하메드 이브라힘은 도서, 사진 전시회를 참관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소말리아에 있는 **김정일** 도서관에 다시면서 조선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었다.

그 과정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위인중의 위인이시라는 것을 더욱 똑똑히 알게 되었다.

조선에서는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것을 최상의 수준에서 만들어 낸다.

나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과 관련한 영화를 두번이나 보았다.

조선에서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사는 조선인민이 부럽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탄생일에 즈음하여 열렬한 축하를 드리며 그이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축원하다.

시에라리온전인민대회당 중앙위원회 국제부장은 영화감상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현명하게 영도하고 계신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사회주의를 훌륭히 건설하고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계심으로 하여 조선의 미래는 확고하며 찬란하다.

지난해 8.15평양축전에 참가했던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들에게 실형선고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91, 2월 10일

이미 보도된 것처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지난 7일 지난해 평양통일축전에 참가했던 문재룡씨 등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그들이 방북과정에서 북측 범민련측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하면서 이같은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사법당국의 이같은 행위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반통일적 행위입니다.

그들에 대한 실형선고와 관련해 범민련 남측본부와 6.15공동선언실천통일연대를 비롯한 각계 사회단체들이 성명 등을 통해 이를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각계 민중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으로, 민족의 기대를 저버리는 반통일적 행위로 규탄하면서 민간단체들의 자유로운 통일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이 지난해 평양에서 진행된 8.15통일대축전에 참가해서 통일활동을 벌인 것은 결코 죄로 될수 없습니다.

우선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으로 말하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전민족적인 통일축전이였습니다. 이남당국도 그들의 방북을 승인했던 것이고 이들은 축전에 참가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의로운 활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사법당국이 문제시하고 있는 북측 범민련측과의 회의문제도 그렇습니다.

회의규모를 봐도 남북해외 범민련대표들이 모두 참가한 민족적인 회합인 것은 물론 토의된 문제를 봐도 6.15공동선언 정신에 맞게 범민련의 강령과 규약을 개정한 것이였습니다.

그것은 자주통일시대의 견지에서 보나 또 온 겨레의 통일지향의 견지에서 보나 지극히 찬양할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의롭고 정당한 통일활동이 죄로 되다니 이것은 누구도 납득할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간과할수 없는 것은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이북은 여전히 반국가단체이고 범민련이 이적단체라고 하면서 그들의 활동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몰아붙인 것입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와 그 이행을 통해 온 민족이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로 힘차게 나가고 있는 이때 아직까지 동족을 적으로 간주한 구시대적인 냉전논리인 이적단체를 운운하고 있으니 이야말로 극악한 반통일집단만이 자행할수 있는 민족반역행위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볼때 범민련 방북단에 대한 사법당국의 폭거가 무슨 ***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과히 짐작치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일운동단체들과 각계 시민단체들의 통일애국활동을 ***가로막음으로써 남북의 진정한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방해하고 나가서 6.15공동선언이행을 전면 차단하려 한다는데 그 저의가 있는 것입니다.

제반 사실은 반통일집단으로써의 사법당국의 진면모를 그대로 드러내보여주었습니다.

시대와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이러한 작태는 반역사적, 반민족적 범죄행위로써 절대로 용납될수 없습니다.

사법당국은 저들의 반통일적 행위로해서 초래될 파국적 결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애국적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당장 중지해야 하며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들에 내린 실형을 즉각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2월 10일

2월명절경축 재미동포음악회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신절에 즈음해 2월명절경축 재미동포음악회가 지난 2일 미국 뉴욕에서 진행됐습니다.

음악회에는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합성국회장을 비롯한 동포들과 미국시민들 40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관현악 ≪**김정일**장군의 노래≫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관현악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안녕은 우리의 행복≫, 남성저음독창 ≪동지애의 노래≫ 등 다채로운 종목들과 세계명곡들이 올랐습니다. 이날 음악회는 관람자들의 계속되는 열렬한 박수속에 관현악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다시 감동속에 연주됐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 저작출판 프랑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프랑스 에디쑈 데모크리트출판사에서 1월 30일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 저작출판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주체철학의 이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1월 25일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상업인쇄소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

국제연락위원회 의장단회의 진행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연락위원회 의장단회의가 지난 4일과 5일 전화 및 팩스로 진행됐습니다.

여기에는 국제연락위원회 명예위원장들인 세계평화이사회 명예위원장, 국제민주법률가협회 명예위원장 등 국제연락위원회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최근 부시의 호전적인 망발을 규탄하며 6.15남북공동선언과 이북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의 호소문을 지지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를 토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세계 각국의 정부, 정당, 단체, 국제기구들에 보내는 호소문과 성명이 채택됐습니다. 호소문은 부시가 연두교서에서 노골적인 북침기도를 표명한 것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구실을 찾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호소문은 세계의 진보세력들과 평화애호세력들이 미제의 새전쟁도발책동을 파탄시키고 남북사이에 시작된 통일과정을되살리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 것을 호소했습니다. 호소문은 6.15공동선언은 한반도의 남과 북이 오늘도 내일도 항구적으로 거머쥐고 나가야할 조국통일이정표이라며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이행하는 여기에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전, 통일의 유일한 담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소문은 국제연락위원회가 긴급의장단회의를 소집하고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며 주한미군을 즉각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는 국제적 서명운동을 벌여나갈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소문은 세계 각국의 정부, 정당, 단체들과 국제기구들, 군사계, 정계, 사회계인사들이 이 서명운동에 참가하여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적극 기여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이회창망언규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평양방송에 따르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7일 성명을 발표해 미국행각시 이회창이 내돌린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망언을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이회창이 미국을 행각해 미국상전앞에서 남북관계진전에 전면으로 반대하면서 동족인 이북까지 걸고드는 망언을 늘어놓은 것은 겨레의 통일의지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며 동족의 머리위에 끝끝내 핵전쟁의 참화를 들씌우려는 반민족, 반통일적인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이회창역도가 반북반통일광기를 부리며 날뛰는 것은 6.15공동선언의 발표로 역사의 밖으로 밀려나게 된 제놈의 꺼져가는 잔명을 외세의 힘을 빌어 유지해보려는데 그 속셈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성명은 이회창과 같은 미국호전광들의 충견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 앉으면 우리 민족은 핵전쟁의 참화밖에 입을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회창이 겨레앞에 저지른 자기의 죄행에 대해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성명은 이남의 청년학생들이 6.15공동선언의 기치하에 굳게 단결하여 이회창과 같은 사대매국노들을 단호히 징벌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리라는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썩고 병든 사회정치적 풍토를 하루빨리 척결해야한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2월 1일～3일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을 최대의 수치와 불행으로 여기면서 다시 태어날수만 있다면 이 땅이 아닌 다른 곳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층에서 더욱 그런데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있는지 이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자리를 같이했습니다.

윤정원 : 그건 무엇보다도 썩고 병든 이 땅의 정치풍토, 이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을 수치로 생각하는 건 사회적 불안과 불신, 또 패륜패덕, 부정비리 등 온갖 사회악이 만연되고 인간으로써의 초보적인 삶의 권리조차 향유할수 없기 때문이죠. 이 땅에 사회악이 만연되고 인간으로써의 삶의 권리가 유린당하고 있는 건 전적으로 이건 썩은 정치때문이거든요. 이 땅의 정치판은 정치권의 구성으로보나 정치권의 형태를 봐도 썩은 내가 풍기지 않을수 없습니다. 여당이나 야당은 어떤 정치적 이념에서 결성된 조직인게 아니라 정치적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결집된 정치사환꾼, 정상배집단에 지나지 않거든요. 한마디로 오합지졸의 집합체라 볼수가 있죠. 여야간이 펴는 정치를 보면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건 없고 당리당략을 위한 것뿐이죠.

사회자 : 역대 정치권도 그러했지만 현 정치권이야말로 썩을대로 썩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현정치권이 얼마나 병들고 썩었는가는 그 실태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윤정원 : 그럼요.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서로 물고 뜯으면서 싸우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 한해동안에 정치권의 행적을 돌이켜봐도 그런데 정치적으로 볼때 지난 한해는 여야간의 싸움도 국정혼란과 각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한해였다고 봅니다. 지난해 초부터 정치권에서 주요쟁점으로 됐던 정계, 언론개혁,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문제는 옹근 한해를 끌면서 여야간의 싸움으로 계속됐죠.

언론사들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언론탄압, 언론길들이기라고 여당에 공세를 들이대면서 우익보수계를 대변하는 조선일보 등을 두둔비호해 나섰고 여당은 그들대로 한나라당이 언론사들의 온갖 부정비리를 비호해나선다고 반격을 하면서 맞서기를 했죠.

이에 따라 언론보도들도 친여, 친야파로 분열이 돼서 서로 물고 뜯으면서 싸움질을 하고 있는데 언론계를 둘러싼 정치권에서의 싸움과 언론계 내부의 갈등과 대결은 새해들어선 오늘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 썩은 정치풍토는 국정운영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죠. 여당과 야당은 국정문제를 국민을 위하고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보고 해결하려 하면서 대결이 격화됐고 이것이 전사회적인 불안과 불신풍조로 이어지게 했죠.

윤정원 :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사회정치적으로 그 어느때보다도 복잡다단했다고 볼수가 있죠. 이것은 전적으로 정치권이 썩고 병들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야는 교원정년연장법안문제를 놓고 국회마당에서까지 개싸움을 벌였고 그리고 재벌개혁문제를 놓고는 야당은 재벌죽이기라고 여당에 공세를 취하는가 하면 여당은 야당이 재벌을 두둔하는 건 재벌을 끌어안고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보려는 행위라고 반격을 가했죠.

정치권이 얼마나 썩었는가는 올해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다리기싸움을 하면서 끝내 협상하지 못한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라의 예산안을 놓고 당리당략의 승벽내기로 이용하려는 여당과 야당이야말로 정치협잡배집단이라 하지 않을수 없어요. 이밖에도 총풍, 세풍사건을 놓고 여야간의 싸움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을 비롯해서 정치권내의 대립은 국정전반의 작고 큰 문제들에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회정치적 불안과 불신이 심화되지 않을수 없죠.

사회자 : 역대적으로 그랬지만 국민들은 현정치권에 대해서 더욱더 환멸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 모두가 현정치권에 대해 믿을 것도, 기대할 것도 없다면서 모두 해체돼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불신과 냉대를 받으면서까지 서로 물고 뜯으면서 싸우는 정치권의 저의가 도대체 뭔가하는 겁니다.

윤정원 : 그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당과 야당의 정국주도권장악을 위한 싸움의 소산이라고 할수 있겠죠.

정치권에서의 정국주도권과 권력장악을 위한 싸움은 현정권 출범초기부터 격화됐고 특히 올해 있게될 대선을 겨냥해 작년부터 더욱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여야간에 서로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싸움은 마치 야수들이 먹을 걸 가운데 놓고 서로 물고 뜯으며 싸움질하는 것을 방불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빼앗긴 한나라당은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대권을 잡으려하고 여당은 여당대로 정권을 유지해보려고 야당을 수세에 몰아넣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 있죠. 이를 보고있으면 세상이 뒤바뀌는 듯한 느낌까지 듭니다. 물론 정치권이 역대적으로 싸움판이 돼왔지만 올해처럼 사회와 국민을 외면한채 치열한 대결로 달과 해를 이어온 적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 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썩고 병든 사회정치적 풍토는 온갖 부정비리가 더욱 창궐하고 있는데서도 찾아볼수가 있다고 하겠는데요. 정치권이 썩으면 사회도 병들고 그속에서 온갖 부정비리가 만연되기 마련이죠.

윤정원 : 맞아요. 지난해의 경우를 놓고 봐도 각종 부정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 한해였다고 할수 있잖아요.

몇가지 사례만 들어볼까요. 여야간에 연중 정쟁의 촛점으로 된 ≪이용호비리사건≫과 ≪정현준≫, ≪진승현≫로비사건을 들수가 있죠. 그 다음에 비리사건에 연루된 것으로해서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난 전 국정원 차장 김은성, 전 국정원 경제과장 정성홍, 전 법무부 차관 ≪신**비리사건≫, 한나라당 의원 ***의 노량진 수산시장 부정입찰의혹, 한나라당 부총재 ***의 여수 골프장주식부정매입과 거액의 금품사건, 자민련 부총재 김용채는 ≪이용호비리사건≫으로 구속돼있죠. 그리고 **시기의 로비사건과 검찰총장 신승남의 동생 신승환이 ≪이용호사건≫에 연루된 사건을 놓고 정치권에서 심각한 대결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밖에 각종 금융비리사건과 공직자들의 비리사건을 비롯해서 부정비리사건을 들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부정비리가 뒤덮여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죠.

정치권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부패방지법을 제정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죠. 입법권을 행사한다는 국회의원들 자체가 부정비리를 일삼고 있고 법을 집행한다는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 모두가 부정비리의 능수로 되는데 이런 국회속에서 어떻게 그러한 법을 확정한다고 부정비리가 근절될수 있겠습니까. 부정비리는 이 땅에서 근절될수 없는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병폐죠.

….

사회자 : 썩고 병든 모든 사회풍조는 이 땅의 썩은 정치, 썩은 사회제도가 낳은 죄많은 결과라고 볼수 있죠. 썩은 정치, 썩은 사회제도의 척결없이는 이 부패한 사회풍조를 없앨수 없다고 봅니다.

윤정원 : 이 땅의 정치는 돈을 위한 정치, 돈있는 자들을 위한 정치고 권력을 쥔 계층이 무권리한 근로민중을 억압하고 수탈하기 위한 정치입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을 위해서 정치권에서 서로 피터지는 싸움을 하고 서로 물고 뜯으면서 상대방 죽이기를 하죠. 바로 이것이 온 사회에 그대로 만연이 돼서 온갖 부패한 사회풍조를 산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회풍조로 말하면 철저한 미국의 식민지사회제도로써 국민들의 초보적인 자주적 권리마저 유린말살되고 있고 식민지주구들의 반민중적 정책으로 국민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권리와 생존권마저 압살당하는 반국민적인 사회제도입니다. 물론 식민지사회제도, 반국민적 사회제도하에서 썩고 병든 사회풍조가 만연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썩고 병든 이 땅의 사회풍조를 갈아엎자면 무엇보다도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야하죠. 이와 함께 썩은 사회풍조를 만연시킨 이 땅의 정치권, 반국민적인 사회제도를 청산을 해야하죠. 그래서 국민들은 이 땅의 어지러운 사회풍조를 보면서 한숨이나 하고 **할게 아니라 그걸 갈아엎기 위한 범국민적인 투쟁을 벌여야 할겁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구국의 소리

이회창의 한미공조 넋두리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2월 7일~10일

극악한 반통일사대매국역적 이회창이 대선을 앞두고 미국상전의 눈에 들기 위해 미국을 행각해 미국상전의 비위를 맞추는 온갖 추태를 다부렸는가 하면 이북을 심히 자극하는 망발도 서슴없이 늘어놓는 개질을 했는가 하면, 그에 앞서 연두기자회견이라는데서도 미국상전의 가려운데를 긁어주는 노복의 가련한 비굴성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이회창의 한미공조 넋두리≫ 언론인 김지성씨의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철씨입니다.

연예인들이 지휘자나 감독의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앙상블을 맞추고 예술기량을 높이는데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된다. 하지만 외세에 종속된 자들이 상전의 곡조에 따라 춤을 추는 꼴은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광대극이다.

한국의 우익보수세력이 미국의 요구에 맞장구를 치는 것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부시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새해 벽두부터 전쟁광기를 부리며 미국공화당패거리들을 한국에 파견해 판문점을 싸다니게 하고 있는 것과 때를 맞추어 한국의 우익보수세력이 한미공조를 외치고 있으니 말이다.

국방부장관이나 외교통상부장관의 한미공조타령도 그렇지만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의 사대매국적인 작태는 더욱 분격을 금할 수 없다.

그는 지난 1월 17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마치 대통령이나 될 것처럼 허세를 부리면서 대북정책에서 전략적 상호주의, 국민적 합의와 투명성, 검증의 세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떠들었다. 이회창이 지키겠다고 하는 세가지 원칙이라는 것은 사실상 부시미행정부가 대북강경책을 고언하면서 들고나온 구호이다. 기회있을 때마다 한미공조를 떠들어온 이회창이 또다시 미국의 대북강경책을 그대로 외우고 있는 것은 친미사대매국행위의 극치라 하겠다. 사실 우리에게는 한미공조가 아니라 민족공조가 절박한 요구로 되고 있다. 한미공조가 냉전시대의 대북주적론에 기반한 전쟁공조라면 민족공조는 화해협력시대에 민족자주정신과 민족대단결사상을 근간으로 삼고 있는 자주평화통일공조이다. 또 한미공조가 우리 민족의 운명을 또다시 외세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친미사대매국의 길이라면 민족공조는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해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고 민족번영을 이룩하는 길이다.

더욱이 미국은 지금 6.15남북공동선언발표이후 좋게 발전되어 가던 남북관계를 침체상태에로 만들고 한반도정세를 전쟁접

경에로 몰아가고 있다. 9.11사건이후 부시미행정부는 한국에 침략무력과 전쟁장비들을 새로 투입시켰는가 하면 한국에 미사일사정거리를 300킬로미터로 연장시켜주고 최첨단미사일 111기를 넘겨주려 하고 있다.

한반도정세는 각일각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자주적인 입장에 선 사람에게서는 한미공조라는 말자체가 나올수 없다. 그런데 이회창은 오히려 한미공조를 더욱 떠들며 미국의 말을 앵무새처럼 외워대고 있으니 그에게 과연 민족의 피가 있는가고 묻지 않을수 없다.

실제로 이회창은 부시호전집단에 아부굴종하는 사대매국역적이다. 하기에 그는 부시미행정부의 패권적 세계전략인 미사일방어체제와 대북강경책을 쌍수를 들어 환영했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안전판역할을 한다고 떠들며 주한미군철수불가론과 영구주둔론을 고창하고 있다. 심지어 그는 한미동맹이 한반도문제의 자주적 해결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는 망발도 서슴없이 함으로써 자기가 한푼의 가치도 없는 친미사대매국역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다.

그가 연두기자회견에서 들고나온 북의 대량살상무기문제라는것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북을 무장해제시키고 일거에 삼켜보려는 미국의 침략야망을 그대로 대변한 것이다. 방대한 침략무력이 호시탐탐 침략전쟁을 노리고 있는데 스스로 무장해제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어처구니없는 소리이다.

북에서는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것은 지난 시기의 역사적 경험을 놓고 보아도 잘 알수 있다. 그런데 이회창이 미국의 북침전쟁계획에 동조하면서 북을 걸고든 것은 어떻게해서든지 미국의 환심을 사서 대권욕을 이루어보려는데 있다.

이회창이 권좌에 앉으면 우리 민족은 전쟁의 참화를 당할 수 밖에 없다.

각계 민중은 우리 민족에게 돌이킬수 없는 전쟁의 재난을 덮씌우려는 이회창을 축출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과감히 나서야 할 것이다.

이회창이 제아무리 미국상전의 힘을 빌어 권좌에 앉아보려고 발악을 해도 우리 민중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온 겨레가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기다리고 그걸 위해 모든 걸 다 바치고 있는 때에 입에 거품을 물고 조국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이런 역적이 권좌에 오를 용꿈을 꾼다는 건 말도 안돼죠.

부시의 방한은 반통일행각

김대룡 - 구국전선 주체91, 2월 11일

2월19일로 예정된 부시의 방한은 철두철미 우리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기 위한 반통일행각이다.

알려진 것처럼 부시는 취임초기부터 대북강경정책을 실시했다.

그로하여 선임정권시기에 진행되던 여러 갈래의 북미대화가 중단되고 북미관계는 다시금 냉각관계로 선회했다.

뿐만 아니라 부시정권의 대북압살정책은 남북사이에 활성화되던 대화와 교류, 협력의 분위기를 깨뜨리고 6.15공동선언이행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했다.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에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합의했고 남북사이에는 화해와 협력의 물꼬가 트이었다.

한반도에 평온이 찾아들고 더욱이 남과 북이 화합하고 힘을 합치는 데서 식민지지배의 위구를 느낀 미국은 우리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아 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는 것이다.

부시가 대북강경정책에 매달리는 것은 또한 한반도정세를 긴장시키고 이를 구실로 더많은 무기를 강매시켜 미국군수독점체들의 배를 불려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대통령과 그의 보좌관들, 국방장관 등 미국고위정객들이 한국정부에 보잉사의 F-15K전투기를 비롯한 자국군사장비구매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은 그에 대한 반증으로 된다.

부시의 이번 방한은 바로 이와 같은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을 현지에서 재확인하며 긴장과 대결을 격화시켜 남북을 영구히 분열시키려는 것이다.

지난 1월 말 부시가 연두교서에서 이북을 대량살상무기개발국으로 몰아붙이고 ≪악의 축≫이라고 망발한 것은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촉진하는 해로 만들려는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를 꺾고 한반도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망발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전쟁광신자, 통일의 방해자 부시의 방한을 결사반대한다.

이 땅의 모든 애국민중은 힘을 합쳐 우리 민족의 통일을 한사코 가로막고 우리의 목을 더욱 조이려는 부시의 행각을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2월 10일

직맹원들의 경축모임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일경축 직맹원들의 모임이 9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중린비서와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직총중앙위원회 렴순길위원장의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은 조선인민이 받아 안은 민족의 대통운이였으며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창창한 미래가 열려 진 력사적사변이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모시였기에 조선로동당과 인민은 20세기의 대동란속에서도 주체혁명위업의 순결성과 계승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칠수 있었으며 선군의 기치밑에 강성대국건설의 새 력사를 펼쳐 나갈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모든 직맹원들이 우리 수령, 우리 사상, 우리 군대, 우리 제도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 나가며 1950년대의 투쟁정신과 라남로동계급의 투쟁기풍으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진군을 다그쳐 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한편 이날 2.16경축 평양시 로동자예술소조 종합공연이 있었다.

산업미술전람회

평양미술축전 2.16경축 산업미술전람회가 9일부터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고 있다.

4월 말까지 계속되는 전람회에는 900여점의 공업제품형태도안, 건축 및 환경장식도안, 각종 상표 및 포장도안이 전시되여 있다. 공업제품형태도안에서는 새롭게 개발한 수자조종후라이스반, 수자조종선반 ncs－400, 복합가공중심반 mc630, 등 실용적가치가 큰 공작기계, 륜전기계도안들과 려객렬차, 특대형무궤도전차, 농촌포전휴계실차 형태도안들이 관람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건축 및 환경장식도안에는 평양역, 빙상관, 평양체육관을 비롯한 수도의 주요 건축물들을 개작하기 위한 도안들과 화대형태, 경축탑, 공원, 유원지 꾸림새도안 등이 특색 있게 창작 되여 있다.

또한 실용예술성을 갖춘 가정용품 및 생활필수품도안, 각종 상표도안들도 이채를 띤다.

합동회의호소문지지
범민련 카나다지역본부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 카나다지역본부가 2일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 호소문을 지지환영하는 편지를 보내여 왔다.

단체는 합동회의에서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로 하고 6월 15일을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날≫로 정하며 5월부터 8월까지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는 운동기간≫으로 할데 대한 호소문이 채택발표된데 언급하고 이를 진심으로 환영하였다.

단체는 카나다지역의 모든 동포조직성원들이 미국의 로골화되는 전쟁확대책동을 짓부시고 북과 남, 해외의 3자련대투쟁에 적극 이바지해 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북조선미싸일위협설≫은 거대군수업체들의 리해관계에 따른것

민주조선

≪민주조선≫ 10일부는 미국의 최대군수업체들인 ≪록키드 마틴≫회사와 ≪보잉≫회사의 ≪설명≫에 근거하여 작성된 ≪북조선미싸일위협설≫이 객관적사실에 근거한것이 아니라 거대군수업체들의 리해관계에 따른것이였다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최근 ≪워싱톤 포스트≫지가 미국이 떠들었던 ≪북조선미싸일위협설≫의 흑막을 밝힌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평가를 내렸다. 론평의 필자는 ≪북조선미싸일위협설≫은 철두철미 우리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군사적으로 압살해보려는 미국의 그릇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미국이 진실로 본토안전의 견지에서 국제적인 미싸일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립장에 서 있다면 응당 일본의 미싸일을 문제로 삼았어야 했을것이였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해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일본의 로케트발사를 문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미싸일문제에서 2중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미국은 있지도 않는 우리의 ≪미싸일위협≫설을 류포시킴으로써 그것을 지레대로 하여 반공화국적대시압살정책을 실현해 보려하고 있다.

최근 부쉬가 직접 나서서 우리를 ≪대량살륙무기위협국≫으로 몰아붙이다 못해 나중에는 ≪악의 축≫이라고 상식이하로 걸고 든 사실은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감정이 얼마나 극도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드러낸것이다.

오늘에 와서 미국의 말이라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그만큼 미국은 민심을 잃었다. 미국은 체모에 어울리지 않게 새빨간 거짓말을 해가며 남을 모해해 보려는것과 같은 그따위 너절한 짓을 당장 걷어 치워야 한다.

리회창의 사대매국행위를 규탄
고통련위원장들

로씨야고통련 위원장과 원동고통련 위원장이 ≪한나라당≫ 총재의 반민족적, 반통일적인 사대매국행위를 규탄하였다.

로씨야고통련 위원장 리동철은 담화에서 ≪한나라당≫ 총재 리회창이 6.15공동선언에 대한 북의 변함 없는 립장과 자세를 비난하고 미군의 영구주둔을 집요하게 주장하는 한편 남북관계진전을 반대하는 망발을 늘어 놓은데 언급하였다.

그는 리회창의 사대와 굴종, 외세와의 ≪공조≫로 일관된 반민족적생리를 규탄하면서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우선 ≪대통령≫감투를 쓰지 못하도록 세상에 그의 사대매국적체질과 못된 속통을 발가 놓고 단죄할것을 호소하였다.

원동고통련 위원장 권천식은 담화에서 조선사람이라면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누구나 다 하루빨리 조국이 통일될것을 념원하고 있다고 하면서 민족의 념원을 짓밟는 리회창의 사대매국행위를 규탄하였다.

리회창은 반민족, 반통일, 사대매국행위를 그만 두고 조선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해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해야 한다고 그는 지적하였다.

김정일총비서칭송 작품발표회
나이제리아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의 아부쟈에서 1월 31일 작품발표회가 진행되였다.

여기에서 발표된 작품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풍모와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강성대국으로 전변되고 있는 조선의 사회주의현실을 찬양하였다.

나이제리아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시 ≪**김정일**, 인류의 영광≫에서 **김정일**각하는 독특한 선군정치로 조선을 강성대국에로 이끄시며 인류의 자주위업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신 위대한 분이시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2.16경축 행사 여러 나라에서 진행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에티오피아, 뻬루에서는 조선영화상영주간 개막식이, 에짚트에서는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 개막식이 진행되였다.

전람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선군령도업적을 보여 주는 사진들, 우리 나라 도서들, 수공예품들이 전시되여 있었다.

조선영화상영주간 개막식들에서는 영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백두밀영고향집≫, ≪평양을 노래하고 싶어≫ 등이 상영되였다.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 위원장은 영화상영주간 개막연설에서 **김정일**각하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면서 당을 강화하고 당의 두리에 인민대중을 묶어 세우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였다고 하면서 하여 오늘 조선에서는 그이를 중심으로 하는 당과 군대, 인민의 일심단결이 공고화되였다고 지적하였다.

에티오피아 청년, 체육 및 문화성 부상은 영화를 보고 로동자, 농민들이 일하는 공장과 농촌을 몸소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모습에서 조선식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의 비결을 알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우리의 ≪생물무기위협≫을 걸고 드는 일본방위청 ≪견해≫를 비난

로동신문

≪로동신문≫ 10일부는 일본반동들이 우리의 ≪생물무기위협≫을 걸고 생화학전준비를 로골적으로 다그치면서 그것을 해외침략의 중요한 수단으로 써먹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일본방위청은 최근에 발표한 ≪생물무기대처에 관한 기본적견해≫라는데서 우리가 ≪생물전능력을 추구≫하고 탄저균 등 생물제의 제조에 사용할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이것은 일본반동들이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에 맞장구를 치면서 생화학무기를 쥐고 해외침략의 길로 나가려는 본심에서 나온것이라고 폭로하였다.

론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생물무기≫는 우리와 아무런 인연도 없다. 사실 생물무기위협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 범인은 다름 아닌 일본이다.

생화학무기를 휘둘러 조선인민을 비롯한 아시아인민들에게 커다란 피해와 재난을 들씌운 전적을 가지고 있는것도 다름 아닌 일본이다.

그들은 ≪9.11사건≫이후 미군에 대한 ≪병참지원≫을 구실로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책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은 생물화학무기개발과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을뿐아니라 실제로 생화학전을 추구하고 있다. 그 구실로 들고 나온것이 우리의 ≪생물무기위협≫설인것이다.

일본반동들이 아무리 우리를 터무니없이 걸고 허튼소리를 내돌리며 저들의 진짜속심을 감추어 보려고 잔꾀를 부려도 소용 없다. 일본이 해외침략의 길로 나가는것은 섶을 지고 불속에 뛰여드는것과 같은 우둔한 짓이다.

선군혁명 천만리

제1편 다박솔언덕에서

로동신문 정론 주체90. 12월 15일

폭풍 사나운 시대의 지평선에 철의 흐름인양 력사의 한줄기가 뚜렷이 그어지고 있다.

주체의 붉은기에 백두산총대철학 피로써 쓰며 가는 위대한 **김정일**장군의 길 - 선군혁명 천만리.

우리 이 길에 올라 피눈물을 씹어 삼키며 ≪고난의 행군≫의 붉은기수호전을 영웅적으로 돌파했고 우리 이 길을 걸어 시련의 얼음장우에 강성부흥의 푸른 봄을 안아 왔으며 우리 이 길우에서 21세기의 해돋이, 선군자주민족의 새 시대를 맞이하였다.

오, 얼마나 성스러운 년대기, 피어린 자욱 자욱인가.

사랑하는 조국을 부둥켜안으시고 몸부림친 우리 장군님의 그 눈물겨운 애국장정의 만고풍상을 무엇으로 다 헤아릴수 있으며 이 천만리길에 회오리치는 장군님의 뜨거운 회억과 크나큰 심장의 울림을 무엇으로 다 그려 낼수 있으랴.

걸음걸음 피땀을 고이며 엮어 간 이 천만리 력정으로 장군은 시대와 력사앞에 자기의 사상과 신념의 서사시를 쓰시였고 태양처럼 위대한 자신의 모습을 그려 놓으시였으며 천추만대가 잊지 못할 불멸의 발자욱을 남겨 놓으시였다.

아직은 세상에 다 말하지 못한, 격정의 눈물없이 들을수 없는 장군의 천만리 영웅실화가 여기에 력력히 씌여져 있으며 백년, 천년후에도 우리 후세들이 영원불후의 **김정일**동지 혁명사상으로, 위대한 **김정일**혁명전통으로 길이 례찬하며 받들어 갈 고귀하고 성스러운 업적이 여기에 있다.

백두산바람 지구에 휘뿌리며 장군님 헤쳐가시는 선군혁명 천만리, 이 위대한 력사의 닻은 어떻게 올랐던가.

이 거창한 영웅시대의 첫 자욱은 어떻게 찍혀 졌던가.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의 거룩한 발자취를 따라 밟으며 전선에서 전선에로 잊지 못할 선군 혁명의 사연 깊은 전역들을 편답한 우리는 부피 두터운 종군록을 펼쳐 여기에 그 첫 편을 쓴다.

1

우리는 지금 백두산장군의 성스러운 천만리 추억을 안고 뜻깊은 력사의 한 지점에 섰다.

유정한 솔숲의 싱그러운 바람이 옷자락 스치고 훈련의 쉴참에 병사들이 부르는 씩씩한 군가소리가 철벽의 진지 넘어져 멀리 조국의 푸른 하늘로 끝없이 울려 가는 초소.

여기가 바로 우리 장군님께서 그리도 애착 깊이 외우시고 정들어 잊지 못해 하시는 다박솔중대이다.

다박솔초소, 언제부터 너의 이 유정한 이름이 우리의 귀에 익혀 지고 우리의 입에 자주 오르게 되였으며 무엇으로 하여 너의 이 자그마한 언덕길이 우리 장군님의 심중에 그리운 다박솔, 못 잊을 다박솔, 고마운 다박솔로 그렇듯 뿌리깊이 자리 잡게 되였던가.

선군혁명의 영광스러운 천만리로정을 돌이켜 보시면서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추억 깊은 말씀이 숭엄하게 메아리쳐 온다.

≪나는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이후 그 어느 때보다 군사를 중시하고 총대를 강화하였으며 1995년 설날에 다박솔중대를 현지지도하는 것으로부터 선군정치를 시작하였습니다.≫

다박솔바로 그 때문이였다.

위대한 선군혁명의 신호총성을 울린 뜻깊은 시작길로 하여 너는 조국이 알고 인민이 알고 세계가 아는 크나큰 시대의 이름, 백두령장의 피, 더운 추억속에 살아 숨쉬는 높고 높은 력사의 산정이 되였다.

오늘에 와서 보면 사변은 너무도 조용히, 너무도 소박한 걸음으로 이루어졌다.

그 나날에 우린 다 몰랐다.

5천년 민족사에 가장 비통한 설날이였던 그 아침 어찌하여 장군님께서 공장이나 농촌이 아니라 병사들이 있는 여기 다박솔초소를 찾아 주시였는지 장군님께 설인사를 드린 병사들도 몰랐고 그 화폭을 신문과 텔레비죤에서 보는 인민들도 몰랐으며 수령님 서거후 첫 혁명활동의 시작인 이날의 충격보도를 듣고 전전긍긍하는 세계도 몰랐다.

오직 한분 장군님께서만이 알고 계셨다.

그이께서만이 이 길이 새로운 하나의 혁명단계, 새로운 정치시대의 서막을 여는 거대한 사변임을 꿰뚫어 보시고 그 어떤 요란한 연설이나 엄숙한 선언이 없이 이 중대하고도 운명적인 순간을 만들어 놓으시였다.

1995년 1월 1일, 우리는 력사의 이날을 영원히 잊지 못한다.

아, 얼마나 가슴 저리는 아픔이였던가.

애통한 울음소리와 뒤섞여 울리는 아이들의 설맞이 공연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허비내는 섣달 그믐밤의 여운이 처절히 남아 있던 그 시간에, 만수대언덕에 올라 제야의 종소리를 듣고 수령님곁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덧쌓여 지던 그 시간에 최고사령부작전대앞에서 ≪피눈물≫이라는 세 글자에 불타는 애국의 의지를 담아 력사적인 친필서한을 쓰셨던 우리 장군님.

피눈물, 누가 이런 말을 했던가.

인간의 생사를 가르는 피와 인간의 가장 강렬한 진정인 눈물의 무게를 대신할 언어는 없으리라.

이 세상 하나밖에 없는 가장 진실한 말, 가장 뜨거운 말, 가장 순결한 말인 ≪피눈물≫. 수령님을 잃은 아픔과 인민에게 하고 싶은 심장의 말을 이 세글자에 담아 피력하시고 찾으신 길, 그 길이 바로 다박솔 길이였다.

피눈물!

다박솔은 이 비장한 형상으로 온다.

수령님 없이 단신으로 찾으신 다박솔, 병사들은 북 받치는 비통함을 누르며 ≪만세≫를 터쳤고 애 써 웃으시며 답례하시는 장군님의 가슴속에도 이름할수 없는 뜨거운것이 고패쳤다.

아, 그래서 병사들이 드리는 축하의 꽃다발을 받으시는 이날의 장군님 사진은 눈가는 젖어 있고 입은 웃으시는 참으로 눈물겨운 모습으로 찍혀진것 아니던가.

너 말없이 서 있는 다박솔아 이야기하라.

너 정갈하게 뻗어 간 푸른 초소길이여 말하라.

온 나라에 수령님의 마지막 신년사의 육성이 울리던 바로 그 시간에 우리 장군님께서 여기 다박솔 언덕에 서계신 그 사연이 무엇이였고 다박솔 너머 만경대 고향집과 만경대갈림길쪽을 말없이 바라보시며 한동안 생각에 잠겨 계신 장군님의 깊은 심중이 무엇이였던가.

만경대를 떠나 백두산에서 시작된 수령님의 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하리라!

피눈물을 안고 이 언덕에 서신 장군님의 심장은 이것으로 세차게 고동쳤으리라.

다박솔은 푸르게만 보이지 않는다.

온 민족이 영영 쓰러져 버릴것 같은 그 절망적인 슬픔의 바다를 헤치고 비장하고도 용감무쌍히 솟아 오른 조선의 첫 이름, 조선의 첫 얼굴이였던 이 언덕은 말그대로 피눈물이 물든 붉은 다박솔이였다.

위대한 것의 탄생은 그만큼 진통이 크다고 한다.

그렇다, 추억은 그렇게 온다.

묻노니 력사여, 우리 정녕 흘릴 눈물을 흘렸던가, 우리 일어날수 있는 것을 일어났던가. 지금에 와서 보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력사처럼 생각되는 때도 있다. 그러나 세월의 망각이 아무리 어쩔수 없는 것이라 해도 우리 장군님께서 쓰러진 인민을 부둥켜안으시고 일생일대의 대용단을 내리셔야 했던 운명의 95년을 어찌 잊을수 있으랴.

세계적 판도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제국주의미치광이들의 압살공세가 절정에 달하고 있던 때에 민족의 어버이를 잃었다. 여기에 참혹한 자연재해와 경제난, 식량난까지 겹쳐 나라는 사실상 위기의 최후계선에 서게 되였다.

수령님의 영생은 어떻게 지켜 드리고 주체위업은 어떻게 계승해 나가며 이 천층만층의 시련의 장막을 뚫고 백두산민족의 장래운명은 어떻게 열어 나가야 하는가.

아마도 우리 장군님께 있어서 이 나날처럼 조국과 혁명의 운명을 두고 그렇게 뼈저리게 모대겨 본적이 없고 그렇게 많이 생각해본 적이 없었으리라.

어떤 사람들은 나라가 처한 형편에 눈이 휘둥그래져 장군님께서 하루빨리 공장을 찾으시여 로동계급부터 일으켜 주셨으면 하는 소신을 피력한 편지를 당중앙위원회앞으로 보내여 왔다. 제국주의 책략가들의 음모에 추종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정책변화를 점잖게 건의하거나 지어 강박하는 정치가들도 있었다.

온 세계가 숨을 죽이고 조선을 지켜보고 있던 그때 장군님께서 제일 많이 생각하신 것이 만경대갈림길이였다.

조국을 광복하신 그해 20년만에 찾는 고향을 지척에 두시고 이 갈림길을 지나 강선으로 달리신 수령님, 아직 당도 없고 국가도 없던 그때, 아직 인민들앞에 자신의 존함을 공개하지 않으시고 개선연설도 하지 않으신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 부디 강선부터 찾으신 그 류다른 사연은 무엇이였던가. 그것은 총대를 잡고 빼앗겼던 나라를 기어이 찾았으니 이제는 마치를 들고 우리의 손, 우리의 힘으로 하루빨리 새 조국을 일떠세워야 했기 때문이였다.

(내일 계속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생하고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역사 강좌 제114회
학사 리광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2월 10일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 강좌 과목 결속강의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생하고 계신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시며 인민의 자애로우신 어버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83(1994)년 7월 8일 급병으로 너무도 애석하게 서거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사업하시다가 집무실에서 돌아가시였습니다. 수령님의 서거는 순직입니다.≫

이와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신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심장이 고동을 멈추는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의 융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나라의 통일과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다가 집무실에서 서거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앞날의 일을 미리 예견하신 것처럼 모든 부문 사업을 깨끗이 마무리하시고 우리 인민과 세계 인민들속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여운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세계에는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님처럼 인민을 위해 생의 마지막 시기까지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며 모든 사업을 깨끗이 마무리하고 돌아간 그런 영도자는 없습니다. 우리 혁명과 조국통일의 앞길에 새로운 국면이 열려지고 있던 역사적 시기에 민족적 영웅이시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세계정치의 원로이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서거하신 것은 우리 당과 혁명, 인류의 자주위업에 최대의 손실이며 온민족과 인류의 가장 큰 슬픔이였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오늘의 내각입니다)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국가장례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국가 장례위원회에서는 주체83(1994)년 7월 8일부터 1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했으며 외국의 조의대표단은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애도기간 우리 인민들은 피눈물을 뿌리며 스스로가 상제가 되어 위대한 수령님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의 슬픔은 하늘에 닿았고 온 나라 방방곡곡은 울음바다, 눈물바다를 이루었으며 산천초목도 비분에 떨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구와 동상을 찾아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수령님을 추모했습니다. 애도기간이 시작되여 7월 20일 아침까지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추모의 정을 안고 조의를 표시한 각계층 인민들과 군인들의 수는 무려 2억 1200여만명에 달했습니다. 남조선의 청년학생들과 인민들도 각지에 분향소를 꾸려놓고 적들의 악랄한 탄압속에서도 굴함없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했고 추모의 글발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을 추모하는 대자보를 거리와 대학구내에 게시하고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고 통일성업에 한몸 바쳐 싸울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해외동포들도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고 **김일성**민족의 존엄을 빛내여나갈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총련을 비롯해 각국의 세계 130여개 해외동포 조직대표단과 단체들, 그리고 또 세계각지의 동포들이 가장 비통한 마음으로 어버이 수령님의 서거에 조의를 표시했습니다. 국가장례위원회는 전체 인민들의 절절한 심정과 요구를 반영해서 추모행사일정을 3일간 연기하는 전례없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주체83(1994)년 7월 19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와 영결하는 의식이 엄숙히 거행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영결식에 참석하시였습니다. 수도의 수백만 시민들과 조선인민군 장병들은 한없이 애석하고 비통한 마음을 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영결하기 위해 수도의 백리연도에 장사진을 쳤습니다. 태양과 같이 환하게 웃으시는 어버이 수령님의 초상화를 앞세운 영구차가 거리들을 돌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결을 바래우는 연도들에서는 어버이 수령님을 부르며 통곡하는 인민들의 곡성이 하늘땅을 뒤흔들며 구천에 사무쳤습니다. 20일 오전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추모하는 중앙추도대회가 수도 평양에서 엄숙히 거행되였습니다. 추도행사가 진행된 20일 낮 12시 정각, 조국의 방방곡곡에서 전체 인민이 3분동안 묵상했으며 모든 기관차, 선박들에서 일제히 고동을 길게 울렸습니다. 중앙추도대회에 앞서 19일 각 도시, 군들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을 추모하는 추도식이 엄숙히 거행되였습니다.

애도기간 우리 인민은 슬픔의 눈물만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혁명의 진두에 서 계시며 그이께서 계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은 빛나게 완성될 것이라는 필승의 신념을 더 깊이 간직했습니다. 우리 인민은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결연히 일떠섰습니다.

애도기간 전국적으로 167만여명의 청년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을 무장으로 옹위할 불타는 마음을 안고 인민군대에 입대와 복대를 탄원했습니다. 그리고 각지 공장, 기업소 근로자들, 고등중학교 졸업반 학생들 근 3만명이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의 자욱이 깃들어 있는 협동농장들에 나갈 것을 결의했으며 수많은 청년동맹원들이 석탄공업부문에 진출할 것을 결의해 나섰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사업하시다가 집무실에서 돌아가시였습니다.
수령님의 서거는 순직입니다.

세계 혁명적 인민들도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에 슬픔과 애석함을 금치 못하면서 수령님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했습니다. 꾸바의 피델 까스트로 루스 동지를 비롯한 세계의 수많은 나라 당, 국가 지도자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로 ≪국제혁명운동은 위대한 보루를 잃었다. 파란많은 역사의 흐름속에서 거성이 떨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한분의 위대한 수령을 잃은 것으로 하여 우리 세계에 커다란 공백을 느끼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했고 우리 인민과 함께 슬픔과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

그리고 60여명의 국가 및 정부수반들과 170여명의 정당지도자들이 우리 공화국의 대표부를 조의 방문했습니다. 또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던 나라들에서도 현직 또 전직 대통령들과 정부수반들, 정객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에 조의를 표시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총회의장도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했으며 유엔본부청사에 조기를 띄웠습니다. 애도기간 세계 120여개 나라들에서 700여개의 출판보도물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와 관련한 특집을 발행했고 세계 200여개의 통신방송이 연 2200여회에 걸쳐 수령님의 서거소식을 전하면서 수령님께서 시대와 인류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널리 소개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세계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신뢰해왔으며 수령님께서 지니신 국제적 권위가 얼마나 높은 것이였는가를 잘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은 그대로 우리 민족과 인류의 역사에 가장 빛나는 장을 기록한 영광스런 투쟁을 한생이였으며 위인중에 위인의 거룩한 생애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장장 80성상 유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고 인류의 자주위업 수행에 특출한 공헌을 하심으로 해서 우리 민족사와 인류역사에 영원한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셨습니다. 가장 걸출한 위인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 위대한 영도자로 모신것은 우리 인민의 최대의 영광이며 특전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비록 서거하시였으나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심장속에 살아계십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불멸의 혁명업적은 전진하는 주체혁명위업, 인류의 자주위업과 더불어 영원히 빛날 것이며 수령님은 주체의 태양으로서 우리 인민들과 세계 혁명적 인민들과 영원히 함께 계실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려는 것은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이며 의지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들과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한결같은 염원과 의지를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는 혁명적 구호를 제시해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제시해주신 이 구호는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한 수령으로 천세만세 길이 모시고 받들려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뜻과 절절한 염원, 그리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의 마지막 시기까지 오랜 기간 계시면서 우리 혁명과 세계 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신 혁명의 성지 ≪금수산의사당≫을 ≪금수산기념궁전≫으로, 또 ≪금수산지구≫를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리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조선노동당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청년들의 조직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사회주의 헌법≫도 ≪**김일성**헌법≫으로 명명해 주셨습니다. 또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솟아오르신 1912년을 원년으로 해서 ≪주체연호≫를 제정하고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인 4월 15일을 ≪태양절≫로 제정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래서 자자손손 내려가면서 ≪**김일성**조선≫,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혈통이 굳건히 이어지게 되였고 우리 조국과 민족의 역사는 영원히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김일성**동지의 거룩한 역사로 흐르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역사는 사상도 영도도 풍모도 어버이 수령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의해서 주체의 영원한 태양의 역사로 빛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로써 주체89~90학년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역사 강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뜨거운 부시 방한 반대, 작가회의도 나섰다

반미 문학의 밤, 시민 단체등과 연대 모색

미대통령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이후 반미 기운이 고조되고 있다. 그 현실적 대응으로 이 달 19일 예정된 부시의 방한 반대 운동이 거세다. 이런 기류속에서 민족문학작가회의(이하 작가회의)도 6일 오전 마포구 아현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대북강경 발언을 성토했다.

이 날 기자회견의 주된 내용은 ≪부시 방한 반대≫와 그 실천적 방안으로 ≪반미 문학의 밤≫등을 펼쳐 나가겠다는 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인 남정현씨는 ≪미국이 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자세를 버리지 않는 이상 뉴욕 테러와 같은 위험이 상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작가회의 부시 방한 반대, 반미 문학의 밤 계획

이날 기자회견은 소설가 이경자, 김정현씨 등 이 단체 소속 작가 10여명이 참가해 ≪부시 방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작가회의는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반전 평화 시 발표를 내용으로 하는 ≪반미 문학의 밤≫을 계획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소설가 이경자씨는 ≪이번 아프간 전쟁을 바라보며 경험해 보지 못한 6.25전쟁을 느낄수 있었다≫며 ≪이 시점에서 작사들은 당연히 현실참여에 나서야 한다≫며 미국의 패권주의적 본질을 온 국민이 깨달아야함을 주장했다.

1시간여 동안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작가회의는 부시 방한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 사회단체나 개혁적 정치인 등과 연대 방침을 확인하고 그 방법을 모색해 나갈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한편 작가회의 이사장 소설가 현기영씨는 ≪미국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도 여론을 주도하는 폭탄과 같은 세력이 있다≫며 미국의 주장에 동조하는 일부 보수층 인사들을 맹렬히 비판했다.

김재중 기자
디지털말 2002/02/08

시민사회단체, 한미투자협정 경제종속화 지름길

금융, 스크린 등 양국 조기타결방침에 반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응 모색

지난해 12월 체결된 한일투자협정에 이어 정부가 올 상반기내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공언하자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반발하며 협상 과정과 논의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달 31일 정부의 한미투자협정 추진이 대미 경제종속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과 논평을 내고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강력한 저지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 ≪투자협정 · WTO반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참여 단체인 노동자의 힘 ·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및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등도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투자협정 반대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 지난달 21일 외교통상부가 미 무역대표부(USTR)와 양자협의를 통해 올 상반기내 양국이 투자협정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반발이다.

한미투자협정은 IMF 구제금융을 받기로 한 지난 98년부터 추진, 중요 쟁점은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스크린쿼터문제로 그동안 교착상태에 있었다.

정부는 미타결상태로 남아있는 한미투자협정을 지난해 말 체결한 한일협정의 최종 조인과 함께 조속히 종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는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양국간 간극을 보여왔던 협력&공조체제 회복과 WTO 협상 등 통상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일괄타결 전략이란 분석이다. 오는 19일 부시 미 대통령 방한기간 중에도 이 문제는 가장 큰 논의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들어 협상의 고삐를 죄자 가장 우려하는 곳은 역시 문화계. 스크린쿼터 문화연대는 정부의 조기타결 방침이 발표되자 지난달 28일 대규모 영화인기자회견을 열고 ≪스크린쿼터 축소시 시민연대 투쟁을 벌이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현재 정부는 연 1백46일인 스크린쿼터를 ≪탄력적으로 축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미국측은 스크린쿼터 문제를 협상의 가이드라인으로 상정하고 ≪마음이 급한≫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있어 미국측의 입장이 최대한 관철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단체들은 스크린쿼터 문제가 한미투자협정의 전부가 아라다고 지적하고 있다. 협정의 목적이기도 한 투자자유화가 한국 경제에 미칠 가장 근본적 영향은 경제의 외자종속화라 것. 한국경제가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란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경제불안 만성화는 물론 국제투기자본의 입김에 따라 언제든지 외환위기 등을 다시 맞을 수 있어 국민 생존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한편 지난 5일 국민행동 주최로 열린 ≪한일, 한미투자협정, 한칠레자유무역협정 반대 토론회≫에서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지난해 말 체결된 한일투자협정 원문 공개 △향후 국민 여론의 동의절차 없이 체결하는 어떤 형태의 양자간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을 체결거부 △스크린쿼터제 폐지 반대 및 대응강구 △졸속 추진중인 한미투자협상 공개 촉구와 타결 추진 저지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하고 공동대응을 모색했다.

이종회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한미협정의 외형적 쟁점은 스크린쿼터지만 미국측의 속내는 금융부문이 핵심≫이라며 ≪통신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내국인 대우 제한문제나 광산업과 같은 국적조항 해제 등과 같은 중요 쟁점을 한국정부가 일방적으로 양보하며 협상이 진척된 그간의 과정을 볼 때 향후 협상은 더욱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재환기자
시민의 신문 2002/02/12

부시, 한국 차기 대통령과 거래 가능성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등장할 때까지 대북 협상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0일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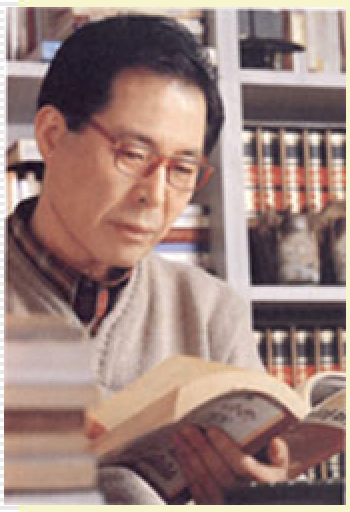
포스트는 ≪부시 발언으로 한국 당혹≫이라는 서울발 기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재선에 나설 수도 없는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은 대북 대화 재개를 시도하기에 앞서 한국의 유권자들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 기다리는 쪽을 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분석가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김 대통령의 뒤를 이을 후보 가운데 선두 주자로 엄격한 상호주의와 특별 검증장치를 토대로 한 포용정책을 표방하는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지난달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백악관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으며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트는 또 지난달 29일 국정 연설에서 북을 ≪악의 축≫의 한 부분으로 표현한 부시 대통령의 강성 발언은 김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오는 19-20일로 예정된 그의 방한에 미묘한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이 미국은 ≪악마의 제국≫이라고 맞받아치며 부시 대통령 발언에 격렬한 반응을 보인 것은 예상된 일이지만 한국인들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고 특히 그의 발언 자체보다도 그처럼 공공연하게 말한 배경을 의아해하고 있다고 포스트는 전했다.

포스트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김 대통령은 당초 서울에서 부시 대통령과 만나 북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이끌어 달라고 설득할 계획이었으나 이제는 기대치를 훨씬 낮췄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권영길대표 인터뷰 (5)



16. 지난 총선 때 국회 의석 한 석을 확보하려다 놓쳐버렸는데, 일반 국민들은 ≪참 안 됐다≫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제도 언론에는 안 나왔지만 당시 후보 선출과정에서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번 울산광역시장 선출도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다고 나오는데...

염려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울산 북구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치러야 될 과정이라 보고 밖에서 민주노동당을 ≪논의 기간이 너무 길다. 너무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다. 비효율적이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이것은 ≪거쳐야할 과정이다...≫ 민주노동당이 뭘 확고하게 세워야 하느냐?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결정돼야 하고, 그 결정된 것은 존중돼야 한다. 즉, ≪민주적 정당을 하나 올바르게 세운다면 우리 정치사에 크나큰 공헌을 한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소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민주적인 전통을 확립하는 과정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것도 있지만 긴 과정으로 볼 때는 얻은 것이 매우 크다...

18. 광역시장에서 민주노동당이 한 석 기대하기가 난망한 겁니까?

아니죠. 왜요? 허허허. 울산시장은 분명히 민주노동당의 시장이 당선될 것이라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9. 기초단체장 중 창원시장은 어떻습니까?

기대를 해도 좋을 겁니다. 허허허.

20. 이주영 의원 쪽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는데... 대표님께서 계속 지구당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운영해 오신 걸로 아는데...

저희 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창원 시민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지난 4 · 13 총선에 출마했을 때 제 생각은 확고했습니다만 일부 후보들이 ≪이 사람은 당선이 되든 낙선되든 선거가 끝난 그 다음날로 봇짐 싸고 서울로 올라갈 거≫라 얘기했습니다. 제가 거기 내려갔을 때는 각오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몸으로, 구체적 행동으로 창원 시민들께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예의에 대한 수준으로 창원에 내려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21. 일전에 김두관 군수와 자치연대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는데, 자치연대에서도 민주노동당과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애로 사항이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자치연대도 껴안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벌써 여러 정당들, 여러 인물들과 광범위하게 인터뷰 하셨네요? 허허허... 김두관 군수는 제가 잘 아는 분이고, 앞으로 정치적으로 대성하기를 갈망하고 가능하면 적극적인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자치연대가 정치적 조직체라고 한다면 정당인 민주노동당과는 분명하고 공식적인 대좌가 있어야 될 겁니다. 저는 그런 공식적인 자리를 회피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김 군수는 바라고 있을 건데 뭐가 더 중요하냐면 자치연대의 규모와 성격과 앞으로의 진로가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연대는 이번 지방선거를 위한 단기간의 선거연대인가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는 정치적 조직체를 표방하는 것인가? 선거연대라 하더라도 자치연대는 어떤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내세울 것인가≫ 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게 없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자치연대의 누구와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대표 홈페이지 에 게재된 인터뷰기사를 8회에 나누어 연재해 드립니다

세무조사가 언란이라는 조선일보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알 것이다. 울화병이라도 걸리지 않으려면 운전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운전을 않더라도 눈을 감고 명상이라도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이다. 가벼운 사고라도 나면 목소리 큰 놈이 이기게 되어있다. 이런 몰상식한 장면은 운전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신문업계도 마찬가지다. 몰상식한 시민들을 계도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자들이 못된 짓 더 하면 더 했지 결코 덜 하지 않다. 이 몰상식한 신문들이 그 큰 목소리로 억지를 부리면 그게 여론이 된다.

국세청이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던 날을 두고 ≪2001년 2월8일 言亂≫이란다. 조선일보 2월9일자 사설이다. 당시 세무조사 결과 그 엄청난 탈세규모에 입을 다물지 못했던 국민들도 이미 이들의 큰 목소리에 속아넘어간 지 오래다. 하여 조선의 독자들은 이 사설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2001년 2월 8일은 한국언론사(言論史)에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란다. 장담하건대 결코 그렇게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기록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공부를 잘못한 것이다. 역사를 아는 연구자가 그렇게 기록할 턱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기록될까? 독재정권 시절 권언유착의 결과 다들 받는 세무조사를 20년 넘게 받지 않거나, 받고도 덮어버렸던 몰상식에 종지부를 찍은 날로 기록될 것이다.

그런데도 ≪일제치하도 군부독재도 아닌, 인권과 민주주의를 앞세운 정권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권력기관들이 벌떼처럼 언론사를 덮쳐 이 잡듯 뒤지는 나라에서 언론자유는 조종(弔鐘)을 울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조선일보가 일제치하와 군부독재를 빗대다니 얼굴도 두껍다. 게다가 언론자유가 조종을 울렸다니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린가? 언론자유가 언제 조종을 울렸다는 말인가? 금시초문이다. 누구 그 종소리 들은 사람 있으면 좀 알려달라. 그런 일이 있다면 앞장서서 조선일보를 돕겠다.

≪도대체 언론이 무슨 중죄(重罪)를 졌기에 1000여 명이 142일 동안 언론인의 가족까지 계좌추적을 하며 사찰을 해야 했단 말인가≫라고 절규(?)를 한다. 언론? 아직도 조선일보를 언론이라고 생각한단 말인가? 이런 따위의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고도 언론인? 아직도 이런 사설을 보며 멋모르고 맞장구를 칠 독자들로서는 천문학적 액수일 규모의 탈세와 조세포탈을 저지르고도 중죄(重罪)가 아니라고 우기니 어쩌면 좋단 말인가?

안타까운 일은 세무조사와 관련된 정부와 청와대 인사들이 줄줄이 비리혐의로 낙마를 했다는 사실이다. 이들을 동정해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비리신문의 억지 논리에 날개를 달아주어 안타깝다는 얘기다. 문제는 안정남 전 국세청장이 탈세 등 비리의 혹을 받고 있다 하여 세무조사 자체가 잘못이라는 식으로 둘러대는 주장이 먹혀든다는 점이다. 또 설령 언론을 길들이기 위해 세무조사를 했다 치더라도 결과는 결과대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마저도 희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거짓언론의 사설은 비장한 결론을 맺는다. ≪우리는 자유언론이 존재하는 한 2001년 2월 8일에 시발된 김대중 정권의 언론탄압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자유언론? 조선일보가 자유언론? 끝까지 세무조사가 언론탄압이란다. 다시 한번 묻거니와 조선일보가 세무조사 때문에 할 말 못한 게 뭐가 있는가? 이게 설명돼야 하지 않는가 말이다. 아니면 세무조사라는 제도를 아예 폐지하자고 제안하든지. 건설회사 세무조사 하면 주거자유 탄압이고, 항공사나 여행사 세무조사 하면 여행의 자유 탄압이고, 자동차회사 세무조사 하면 운전의 자유 탄압이 되겠네?

김대중 정권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적어도 언론사 세무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여 단죄를 내린 데 대해서는 박수를 보낸다. 이로 인하여 정권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으나 역사의 정당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복수심에 불타 정부가 하는 일에는 잘잘못 가리지 않고 무조건 공격함으로써 국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폐해를 끼친 조선 동아의 추악한 작태는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김동민기자
오마이뉴스 2002/02/10

조 · 미 관계 10년을 통해 본 한(조선)반도의 통일정세 (4)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2001년 9월 18일 작성

차례

(1) 조 · 미 관계의 본질과 세 차례의 정치적 합의
(2) 사회주의혁명의 최대 시련기에 발휘한 북(조선)의 돌파력
(3) 조 · 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과정
▶ (4) 분단체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민족통일기구수립이 가지는 의의
(5) 민족민주전선은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4) 분단체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민족통일기구 수립이 가지는 의의

반세기가 넘도록 분단체제를 지탱해온 힘의 균형상태가 만일 깨어지지 않는다면 분단체제는 없어지지 않고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이다. 그런데 평양회담과 6.15 공동선언 채택 이후 오늘의 현실은 분단체제를 지탱해온 힘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분단체제를 유지하려는 힘과 분단체제를 제거하려는 힘 사이의 역량관계가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세력과 반통일세력의 투쟁이 그 역량관계를 변동시키는 원인이다. 그 투쟁에서 어느 쪽이 승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힘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통일세력과 반통일세력의 역량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구도가 보인다. 지배 • 예속구도로 병합되어 있는 제국주의세력과 친미예속세력은 분단체제를 유지하는 반통일세력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에 반하여 북(조선)의 사회주의혁명역량과 남(한국)의 민족민주전선역량은 각기 분단체제를 제거하려는 통일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두 개의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다. 분단체제를 유지하려는 반통일세력과 그 체제를 제거하려는 통일세력 사이에서 형성된 역량관계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

제1측면 – 사회주의혁명역량과 제국주의세력이 대결하는 측면
제2측면 – 사회주의혁명역량과 친미예속세력이 대결하는 측면
제3측면 – 민족민주전선역량과 제국주의세력이 대결하는 측면
제4측면 – 민족민주전선역량과 친미예속세력이 대결하는 측면

이 대결구도의 네 측면에서 주되는 두 측면은 사회주의혁명역량과 제국주의세력이 대결하는 제1측면, 그리고 민족민주전선역량과 친미예속세력이 대결하는 제4측면이다.

북(조선)의 견해에 따르면,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친미예속세력보다 제국주의세력에 대해 공세를 더 집중해야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까닭은 제국주의세력이 친미예속세력보다 더 강한 상대이므로 제국주의세력과의 투쟁에서 승리하면 친미예속세력도 쉽사리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민족민주전선역량과 친미예속세력이 대결하는 측면을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까닭은, 제국주의세력이 민족민주전선역량을 직접 상대하려 하지 않고 언제나 친미예속세력을 앞에 내세워 상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국주의세력은 자기보다 힘이 약한 친미예속세력을 동원해서 민족민주전선역량을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친미예속세력을 앞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만일 민족민주전선역량이 비상히 강화되어 친미예속세력으로서는 도저히 제압할 수 없고 되레 제압 당하게 되면, 제국주의세력은 직접 민족민주전선역량을 타파 • 소멸하려고 덤벼들 것이다. 그러나 민족민주전선은 아직 그러한 조건에 있지 않다.

그렇다면 한(조선)반도의 역량관계에서 볼 때, 어떠한 조건에서 분단체제가 제거되고 조국통일이 실현될 수 있을까? 사회주의혁명역량과 제국주의세력의 대결에서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하고, 민족민주전선역량과 친미예속세력의 대결에서 민족민주전선역량이 승리한다면 분단체제가 제거되면서 조국은 통일될 것이다.

➡

광고

PDF자료집

21세기 태양

세기와 더불어
4 미래에 대한 락관
노작
6 영화예술론
-음악과 음향을 살려 써야 한다
-음악이 없는 영화는 영화가 아니다
-들을수록 좋고 인상 깊은것이 명곡이다
-선률은 특색이 있어야 한다
-가사가 좋아야 곡이 잘된다
-음악은 장면에 맞아야 한다
-편곡은 창작이다
노래정치
20 령도자의 노래정치
영도철학
22 주체의 예술을 창조하라
일화
24 절가
26 음감
구국전선
28 민족악기를 개량발전시키시어
29 장군님께서 좋아하시는 세계적인 명곡
주체 87년 음악정치
30 조선인민군협주단 공훈합창단 경축공연 관람
31 위인에 대한 찬가
32 경축공연관람
32 여러 군부대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을 관람
33 김정일 총비서를 칭송하는 노래를 창작보급
34 조선인민이 부르는 희망의 노래,락관의 노래
34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경축공연 관람
35 당창건53돐경축공연관람
36 공군사령부 예술선전대,포병중대의 공연관람
37 새별회,김정일 총비서 칭송하는 노래와 시
37 군공훈합창단과 군악단의 합동공연 관람
주체 88년 음악정치
38 예술선전대공연을 관람
38 휘파람악단이 서울에서 2.16경축공연
39 인민군 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을 관람
39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관람
40 인민군 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관람
40 인민군 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 관람
41 인민군청년기동선전대의 공연을 관람
주체 89년 음악정치
42 수령흠모송가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43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을 관람
43 칭송,음악평론가
44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 관람
45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
46 중국고위군사대표단과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관람
47 조선인민군협주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을 관람
주체 90년 음악정치
48 중국 상해 교향악단공연을 관람
48 중국공산당대표단과 상해교향악단 환영연회
49 로씨야국립아까데미야내무성 협주단의 공연을 관람
49 협주단의 지휘성원들과 주요배우들을 접견
50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을 관람
50 군공훈합창단과 군악단의 합동공연 관람
51 일본에 있는 남조선가수 김련자일행을 접견

이것은 자명한 이치다. 우리가 더 따져 묻고자 하는 물음은, 지난 10년 동안의 정세는 이 자명한 이치에 얼마나 합치되어 왔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의 정세동향을 역량관계의 변동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사회주의혁명역량은 제국주의세력에 대한 투쟁에서 승리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데, 민족민주전선은 친미예속세력을 제압할 만큼 압도적인 역량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돋보인다. 그러므로 앞으로 10년 안에 분단체제를 제거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느냐 혹은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중요한 관건은 민족민주전선역량을 어떻게 강화하느냐 하는 문제에 달려있다.

2000년 6월 평양회담에서 채택한 6.15 공동선언은 앞으로 10년 안에 분단체제를 제거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방략을 제시한 역사적인 문서다. 북(조선)의 견해에 따르면, 조국통일의 실현방략을 제시하고 있는 6.15 공동선언이 2000년 6월에 채택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주의혁명역량과 친미예속세력의 대결에서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제국주의세력과의 대결에서 승리국면에 들어선 기세를 몰아 친미예속세력의 민족분열책동을 제압하고 6.15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는 것이 북(조선)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6.15 공동선언이 제시하고 있는 조국통일의 실현방략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는 방략이다. 이것은 조국통일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국가연합제의 공통성을 실체화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두 방안의 공통성을 실체화한다는 말이다. 여기서 공통성을 실체화한다는 말은 조국통일과업을 담당・추진하는 정치적 주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북(조선)은 그 정치적 주체를 ≪민족통일기구≫라고 부른다. 북(조선)은 6.15 공동선언을 채택한지 약 넉달 뒤인 2000년 10월 6일에 처음으로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북(조선)의 견해에 따르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국가연합제의 공통성을 실체화하는 것이 곧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족통일기구란 무엇인가? 민족통일기구는 통일국가의 지위와 권능을 아직 갖지 못한, 그러나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담당・추진하는 남북 정부당국의 공동기구라고 볼 수 있다. 민족통일기구가 두 정부당국만 참여하는 공동기구인지 아니면 정부당국, 정당, 사회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명실공히 전민족적인 공동기구인지는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북(조선)의 통일론에 비추어보면 전민족적인 공동기구라고 예상된다. 그렇지만 조국통일과업을 담당・추진하는 전민족적인 공동기구를 수립하는 것에 대하여 제국주의세력과 친미예속세력의 반대와 저항이 만만치 않은 현실조건에서 그러한 기구를 수립하더라도 처음부터 전민족적인 공동기구를 내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정부당국의 공동기구를 수립하고 일정한 조건이 성숙된 단계에 가서 차츰 정당, 사회단체도 참여하도록 폭을 넓혀 가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당국의 공동기구를 수립하는 과업과 정당, 사회단체가 공동기구를 수립하는 과업은 당분간 각각 분리되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001년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진행된 민족통일운동촉진기간에는 정당, 사회단체들이 조국통일 공동기구를 수립하는 과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었다.

민족통일기구가 수립되면 그 기구는 정치권, 외교권, 군사권을 두 정부가 종전대로 행사하게 하면서, 그 밖에 다른 권능을 하나로 통합해 가는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민족통일기구는 정치권, 외교권, 군사권을 아직 통합하지 못한 조건에서 두 정부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과도적 공동기구이므로 국가연합제 방안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 그 기구를 수립하는 것은 김영삼 정부가 제시했던 ≪남북연합≫을 수립하는 방안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 이전에 내놓았던 3단계 통일론에 나오는 ≪공화국연합≫을 수립하는 방안, 곧 모든 형태의 국가연합방안과 모순되지 않는다.

민족통일기구가 남북 정부당국이 대등하게 참여하는 공동기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지만, 그 지위, 역할, 권능의 문제에 관해서 남과 북의 정부당국은 좁히기 힘든 견해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그 공동기구의 지위에 관련하여 남(한국) 정부는 남과 북의 정부 밑에 두고 상호협력하는 공동기구로 생각할 것이고, 그에 비하여 북(조선)은 남과 북의 정부 위에 두는 공동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두 정부 산하의 공동기구냐 아니면 두 정부 상위의 공동기구냐 하는 데 따라서 그 권능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다르게 된다. 그 공동기구의 임무와 역할에 관해서도 남(한국) 정부는 남북 사이의 교류・협력기구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에 비하여 북(조선)은 조국통일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의 서울회담에서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하기로 합의하자는 북(조선)의 비공식 제안에 대해서 남(한국) 정부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는 데 있다.

지금 북(조선)이 남북 정부당국의 협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당면과업은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하는 과업이다. 남(한국) 정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지만 남북 최고 지도자의 회담이 열리기만 하면 극적으로 타결점을 찾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미 집권 말기에 들어서고 있는 남(한국)의 현 정권은 남북 정부당국의 정치협상에서 합의한 내용을 실현하는 데서 무기력증을 노출하고 있다. 민족통일기구가 수립된다고 해도 아마 차기 정권에 가서야 정상적으로 가동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하는 당면과업을 생각할 때, 차기 정권을 세우는 2002년의 선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하더라도 정치권, 외교권, 군사권은 남북 정부가 종전처럼 독자적으로 행사하게 되므로 조국통일은 아직 실현된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다. 정치권, 외교권, 군사권을 통합하는 문제는 한・미 동맹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이므로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는 해결하기 힘들다. 민족통일기구는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기 이전까지 제한된 범위 안에서 조국통일과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면 그 정부는 정치권, 외교권, 군사권을 통합하여 마침내 연방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과업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

(내일 계속됩니다)

조국통일3대헌장

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5대방침 (2)

주체사상 총서 5권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이며 기본강령이다. 그것은 우선 조선민족이 함께 살고 번영하며 다른 모든 문제보다 민족문제를 먼저 해결하려는 숭고한 민족적 이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으로, 기본강령으로 된다. 외세의존과 전쟁, 대결은 민족자멸의 길이며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은 조선민족이 함께 살고 함께 번영하는 참다운 길이다. 우리 민족은 자주를 지향하고 평화를 요구하며 대단결을 염원한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숭고한 이념이다. 서로 사상과 제도상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은 절대로 북과 남이 하나의 민족적 이념 밑에 단합하지 못할 조건으로는 될 수 없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민족문제를 다른 모든 문제보다 우위에 놓고 그것부터 해결해나가기 위한 올바른 원칙이다. 민족적 자주권이 유린되고 긴장격화와 전쟁의 위험이 증대되며 불신과 대결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 대단결보다 더 절박하고 중대한 문제는 있을 수 없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은 사상과 제도상의 차이를 없애는 문제보다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는 문제를 우위에 놓는 원칙이며 모든 문제의 해결에 앞서 민족재생의 길을 열어나가는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한 원칙이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이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으로, 기본강령으로 되는 것은 또한 그것이 조국통일문제해결의 가장 올바른 출발점으로, 기초로 되기 때문이다.

조국통일의 3대원칙은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정당한 원칙이다. 자주의 원칙은 외세의 간섭을 없애고 우리 민족의 이익에 맞게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이며 평화의 원칙은 북과 남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무력충돌과 동족상쟁의 내란을 없애고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을 원하는 인민들의 지향에 맞게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이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대결과 반목, 질시로 하여 민족의 숙망이 짓밟히며 당파적 이익으로 하여 민족의 위업을 그르치게 되는 불행을 없애고 통일을 요구하는 온 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통일은 반드시 이 3대원칙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조국통일의 3대원칙은 조국통일을 위한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근본방도로 된다. 자주의 원칙은 조국통일의 기본장애물인 외세의 간섭을 없애고 자체의 힘으로 조국통일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게 하며 평화의 원칙은 긴장상태를 없애고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조국통일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한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대결과 반목을 없애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어렵고 복잡한 통일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게 한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고 그로부터 출발하여야 통일문제해결에서 나서는 다른 모든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으며 우리 민족의 통일을 빨리 실현할 수 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오늘의 시대적 사조를 폭넓게 반영한 가장 현실적이고 정당한 원칙인 것으로 하여 또한 조국통일위업수행의 근본원칙으로, 기본강령으로 된다. 자주의 원칙은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와 민족적 독립을 요구하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조국통일의 원칙이며 평화의 원칙은 전쟁을 배격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시대의 사조를 반영하고 있는 조국통일의 원칙이다. 민족대단결의 원칙도 분열을 반대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시대적 사조를 반영하고 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오늘의 시대적 사조를 반영하고 있음으로 하여 가장 생활력있는 조국통일의 원칙으로 된다. 그러므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본강령으로 틀어쥐고 나갈 때만이 나라를 통일하는 역사적 위업을 시대의 추세에 맞게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